한·EU FTA 체결에 따른 수출 유망 품목 | 차류 |

2011. 10

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수출전략처 식품수출정보팀

머리말

2011년 7월 1일 한·EU FTA의 발효로 인해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경제권이 활짝 열렸습니다. 2010년 기준 EU의 GDP는 16조 3천억 달러로 미국의 14조 7천억 달러를 능가하며, 이는 세계 전체 GDP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또한 EU의 농림수산식품 수입 규모는 1,832억 달러(역외교역 기준)로 일본의 895억 달러의 2배 규모이며 일본,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4위 수출 시장입니다. 이러한 EU와의 FTA 체결로 우리 농림수산식품의 유럽 시장 진출 통로가 더욱 넓어지고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aT는 유럽 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를 위하여 EU 27개국 중 한국 농림수산식품 수입 규모 및 현지 식품 시장 규모가 큰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비교적 큰 품목 중 한국산으로 대체 가능하며, 한·EU FTA 발효 시 관세 철폐 대상인 버섯, 과실류, 차, 소스류 등 9개 품목을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조사는 품목별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수출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로테르담 aT센터를 통해 한국 농식품의 현지 시장 경쟁력과 시장 확대 여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료집이 한·EU FTA의 기회를 100%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한국의 FTA 허브 전략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1. 10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이사 **박 종 서**

조사개요 및 조사요약

조 사 개 요

Ⅰ. 조사 개요

조사 목적

- 일본,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4위 교역국이자 수출시장인 EU와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對 EU 수출 확대 가능 품목에 대한 EU 지역 내 경쟁력 수준 및 수출 확대 가능성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 다변화 모색

조사 필요성

- 관세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시장 진입 유망 품목 및 수출 경쟁력 강화 품목 발굴

조사 품목

- 면류, 과자류, 소스류, 과실류, 버섯류, 건강보조식품(인삼), 김, 차류, 음료류 (9품목)

조사 대상국

-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4개국)

주요 내용

- 시장개요
- 유통동향
- 소비동향
- 수입동향
- 통관 및 수입검사
- 한국산 수출확대 방안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기간 : ‘11년 5월 ~ 9월
- 조사방법 : 로테르담 aT센터

Ⅱ. 주요 조사 내용 요약

차류

가. 영국

시장개요

- 2010년 영국의 차 시장 규모는 8.5억 파운드, 한화 약 1.5조 원에 달하며, 판매량은 10만 톤을 약간 넘는 수준임
- 영국 차 시장의 9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홍차의 판매량이 연평균 0.8%씩 감소한 반면, 과일/허브차, 녹차, 기타 차의 판매량은 최근 6년간 모두 두 자리 수 이상으로 크게 증가함

유통동향

- 영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차의 유통 경로는 몇 단계의 유통 단계를 거치느냐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제조업체 → 수입/유통업체 → 소비자
    → 소매업체 → 소비자

- 차 제품의 유통 채널은 크게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off-trade와 호텔, 레스토랑, 카페 등을 포함하는 각종 케이터링 업체 및 자판기를 통한 on-trade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0년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이 전체 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소비동향

- 차 종류별로 전체 침투율을 비교해 보면, 홍차의 제품 침투율은 78.3%에 달하고 있으나 과일/허브차 20.4%, 녹차는 11%에 불과함
- 홍차의 경우 남자와 여자의 음용률이 모두 78% 전후로 비슷한 수준이나 녹차는 여자가 남자보다 5% 가량, 과일/허브차는 무려 10% 가량 더 많이 음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수입동향

- 2010년 영국의 차 수입 규모는 수입액 기준 4억 2천만 달러, 한화 약 4,412억원,

수입량 기준 15만 톤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1%, 1.3%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영국이 가장 많이 차를 수입한 국가는 케냐,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순이며, 일본은 21위, 한국은 50위를 차지함

통관 및 수입 검사

- 2008년~2010년 유럽 지역의 차 제품 통관 거부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크게 곤충 사체 또는 살아있는 곤충 검출, 비승인 방사선 처리, 중금속/농약 검출의 3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중 곤충 사체 또는 살아있는 곤충 검출이 5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체는 수출하기 이전에 제품에 곤충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한국산 수출 확대 방안

- 차 문화 수출을 통한 제품의 수출
  - 영국 제품들을 보면 제품 소개에 'classic', 'traditional', 'speciality'라는 단어들과 얼마나 오랫동안 차를 전문으로 전통을 쌓아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고 있음
  - 따라서 영국 소비자들에게 한국의 차를 중국산 차와 다른 보다 고급스럽고, 고품질의 차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차 문화를 보급함과 동시에 차 제품을 수출하는 전략이 필요함
  - 런던에 위치한 재영 한국 문화원과 같은 기관을 통해 한국의 차 문화 체험 행사 등을 실시하고 차 문화를 보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건강, 유기농, 편리성
  - 영국 차 시장에서의 화두는 '건강'과 '유기농'으로, 홍차가 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녹차와 과일/허브차가 최근 급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현지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 이와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영국 소비자들은 아무리 건강에 좋고 유기농이라고 하더라도 마시는데 편리하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는 성향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제품의 편리성으로 현지 소비자들의 제품 소비를 장려하면서도 제품의 품질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티백 형태로 제품을 제조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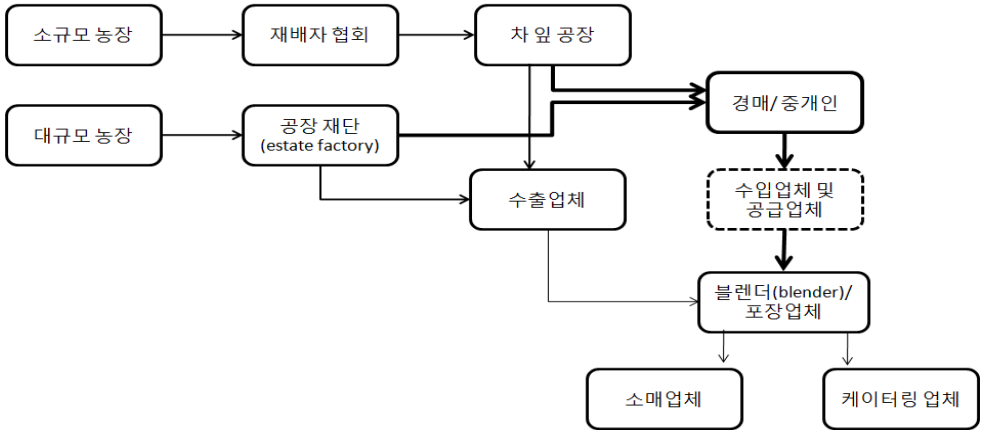
나. 프랑스

시장개요

- 2010년 프랑스의 차 시장규모는 12,246톤으로 전년대비 0.5%가 증가함
- 차 종류별로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홍차는 5천 톤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를 기록하였고, 과일/허브차 약 4천 3백 톤, 녹차 2천 여 톤, 즉석차 685톤, 기타 차 240톤 순으로 파악되며, 이 중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제품은 녹차임

유통동향

- 일반적으로 프랑스로 수입되는 차 제품들은 잎의 형태로 들어오는 비중이 대부분이고 소비자 판매용 패키지 제품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조사됨
- 수입 차 제품의 유통경로를 정리해 보면 아래 도표와 같음



수입동향

- 2010년 프랑스의 차 수입규모는 금액을 기준으로는 1억 5천 6백만 달러, 한화 약 1,696억 원, 물량으로는 약 2만 톤을 기록함
- 프랑스에서 차를 가장 많이 수입한 원산지는 영국으로 32.8백만 달러, 2.7천톤으로 나타났으며, 독일(3천만 달러, 3.6천 톤), 벨기에(2.7천만 달러, 3.3천톤), 중국(2.6천만 달러, 4.9천 톤), 폴란드(1천만 달러, 1.3천 톤)가 2~5위를 차지함

통관 및 수입검사

- 2008년~2010년 유럽 지역의 차 제품 통관 거부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크게 곤충 사체 또는 살아있는 곤충 검출, 비승인 방사선 처리, 중금속/농약 검출의 3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중 곤충 사체 또는 살아있는 곤충 검출이 5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체는 수출하기 이전에 제품에 곤충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한국산 수출 확대 방안

- 고급 차로서의 이미지 구축
  - 프랑스에서는 차, 특히 녹차의 경우는 건강, 웰빙을 지향하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의 일종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색다른 차를 원하는 젊은 소비자들과 고급스럽고 진귀한 차를 찾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되고 있음
  - 패키지의 재질뿐 아니라 색, 글자체, 문양 등을 통해 고급스러우면서도 한국 전통차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패키지에 단지 수입 업체와 중량, 보관 방법 등의 필수 라벨링 사항뿐 아니라,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품 관련 인증
  - 제품의 품질에 대해 프랑스 소비자들에게 별도의 홍보 없이 신뢰성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세계적인 기관으로부터 차 제품과 관련된 인증을 받아, 인증 마크를 패키지에 넣는 것임
  - 가장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유기농 인증이 있음
- 한국의 차 생산지와 연계한 홍보
  - 인도의 다르질링(Darjeeling)과 아쌈(Assam), 스리랑카의 실론(Ceylon)은 대표적인 차 생산지로, 이 지역에서 생산된 차가 널리 퍼지면서 생산 지명이 마치 차의 종류인 것처럼 인지되고 있음
  - 또한 이 차 생산 지역은 관광 코스로도 활용되고 있어 생산지를 둘러본 후에 차도 시음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차 례

영 국 / 1

1. 시장개요 ····· 3
2. 유통동향 ····· 11
3. 소비동향 ····· 14
4. 수입동향 ····· 19
5. 통관 및 수입 검사 ····· 25
6. 한국산 수출 확대 방안 ····· 33
7. 참고자료 ····· 37

프랑스 / 39

1. 시장개요 ····· 41
2. 유통동향 ····· 48
3. 수입동향 ····· 52
4. 통관 및 수입검사 ····· 59
5. 한국산 수출 확대 방안 ····· 66

영 국

1. 시장개요 ····· 3

2. 유통동향 ····· 11

3. 소비동향 ····· 14

4. 수입동향 ····· 19

5. 통관 및 수입 검사 ····· 25

6. 한국산 수출 확대 방안 ····· 33

7. 참고자료 ····· 37

1. 시장개요

차 종류별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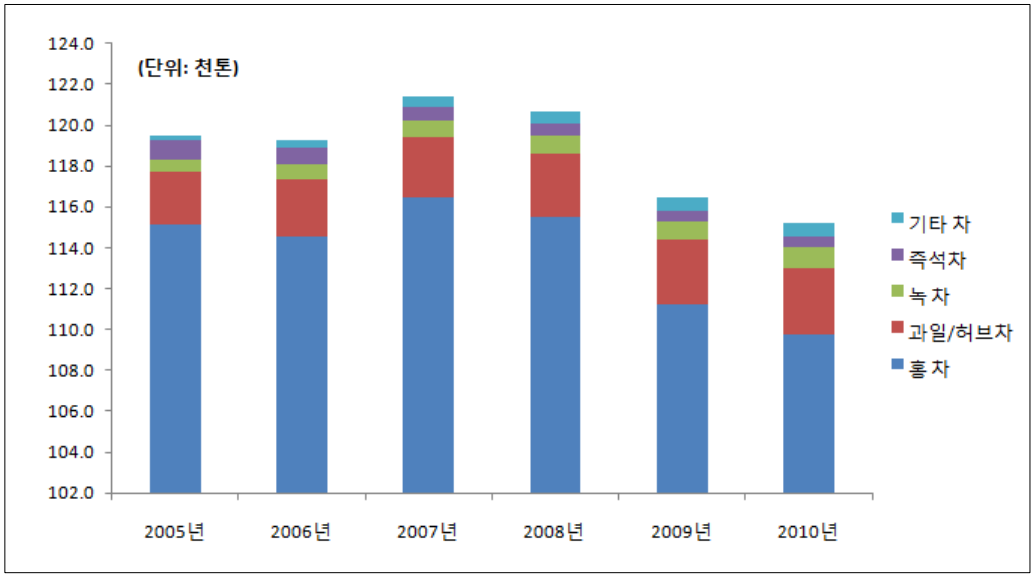
- 2010년 영국의 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1.3%가 감소한 11만 톤을 약간 넘는 수준을 기록함
- 2005년 이후 최근 6년간의 시장규모 동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시장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6년 중 2007년에 최대치인 12.1만 톤이 판매되었으나, 이후 급속하게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2008-09년에는 12.0만 톤에서 11.6만 톤으로 약 3.4%가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는 11.5만 톤으로 떨어짐
- 그 결과 6년간 영국의 차 시장규모는 4.7% 감소함
- 그러나 차 종류별로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홍차와 즉석차를 제외한 과일/허브차, 녹차, 기타 차의 판매량은 최근 6년간 모두 두 자릿수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여 차 종류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 영국 차 시장의 대부분인 9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홍차의 판매량이 연평균 0.8%씩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차 시장 규모가 축소됨
- 이와 같은 홍차의 판매량 감소는 English Breakfast, Earl Grey 등과 같은 대표적인 홍차 외에는 별다른 신제품이 출시되지 않고 있어 비교적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홍차가 지루한 제품으로 인지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영국에 미국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가 진출한 이후 영국 브랜드인 코스타(Costa), 이탈리아 브랜드인 Cafe Nero 등이 경쟁을 벌이면서 커피 문화가 영국 소비자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됨
- 이와 같은 홍차의 대체품이라 할 수 있는 커피 문화 확산의 여파로 홍차의 소비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
- 반면, 과일/허브차 및 녹차는 6년간 각각 26.3%, 67.8% 증가하며 시장 규모가 신장하고 있음

- 이러한 과일/허브차 및 녹차 시장의 성장은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홍차와 비교하여 보다 건강에 좋은 차라는 이미지가 구축되고, 다양한 프리미엄 신제품이 출시된 것에 기인함

〈 차 종류별 시장규모(판매량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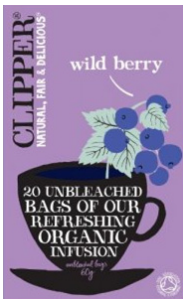
(단위 : 톤,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09-10년 성장률	2005-10년 성장률
홍 차	115,172.9	114,555.7	116,453.2	115,512.0	111,217.3	109,786.8	-1.3	-4.7
과일/허브차	2,571.6	2,810.1	2,993.5	3,122.9	3,153.6	3,249.0	3.0	26.3
녹 차	592.2	702.4	780.6	836.8	895.3	993.8	11.0	67.8
즉석차	909.1	851.1	665.9	599.3	547.2	503.4	-8.0	-44.6
기타 차	204.7	335.2	498.1	568.8	625.7	685.2	9.5	234.7
합 계	119,450.5	119,254.6	121,391.2	120,639.8	116,439.1	115,218.1	-1.0	-3.5



자료 : 유로모니터 2011

〈 영국의 차 신제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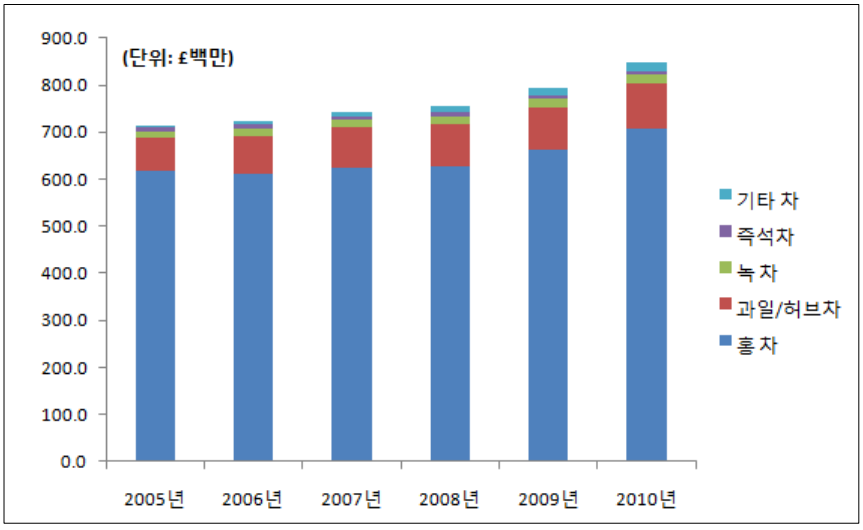
			
딸기 & 망고	야생 베리	배 & 사과 녹차	꿀 녹차

- 반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영국의 차 시장규모는 2010년 8.5억 파운드, 한화 약 1.5조 원에 달함
- 영국에서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 차 시장규모는 2005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반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차 시장규모는 2006년을 제외하고 연평균 3.06%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인도와 케냐의 극심한 가뭄으로 세계 차 공급 규모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한데 따른 결과임
- 이에 따라 시장규모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던 홍차의 경우,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하여 2005-10년 동안 무려 14.5%가 증가함

〈 차 종류별 시장규모(매출액 기준) 〉

(단위 : 백만 파운드,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9-'10년 성장률	'05-'10년 성장률
홍 차	616.5	611.7	623.3	628.7	661.4	705.8	6.7	14.5
과일/허브차	72.9	80.7	85.6	88.0	90.9	96.7	6.4	32.6
녹 차	11.2	14.3	16.3	17.2	18.8	21.0	11.7	87.5
즉석차	11.4	10.4	9.0	7.9	7.1	6.4	-9.9	-43.9
기타 차	3.2	6.0	9.3	13.0	14.8	16.9	14.2	428.1
합 계	715.2	723.1	743.6	754.9	793.0	846.9	6.8	18.4



자료 : 유로모니터 2011

-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규모를 보면 2005년 이후 차 종류 중 가장 크게 성장한 품목은 기타 차로 무려 428.1%가 증가함
- 기타 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루이보스 차(Rooibos tea)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등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얻음
- 기타 차에 이어 녹차와 과일/허브차도 각각 87.5%, 32.6%의 높은 신장세를 보임
- 그러나 차 종류 중 즉석 차만이 유일하게 시장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즉석 차는 가공 또는 인공적인 제품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임

차 브랜드별 시장점유율

- 2010년 Unilever의 PG Tips와 Tata Tea사의 Tetley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22.3%와 19.8%로 영국 차 시장의 선두 업체로 조사됨
- 그러나 두 업체 모두 2007년 이후 시장점유율이 정체 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PG Tips와 Tetley의 경우는 제품이 다양하지 않고 홍차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임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PG Tips의 경우는 매출액의 99%, Tetley는 매출액의 94%가 홍차에서 발생하고 있어 홍차 시장의 축소에 따라 이들 업체의 시장 점유율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홍차보다는 과일/허브차, 다양한 맛을 조합한 녹차 제품 등을 활발하게 출시하고 있는 Twinings와 Clippers는 시장점유율이 증가 또는 유지를 하고 있으며, 틈새시장을 겨냥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기타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기타 업체들의 경우 2007년에는 시장점유율이 10.3%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15%가 넘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차 종류별 시장규모뿐 아니라 차 브랜드별 시장점유율 자료도 홍차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영국의 차 시장이 빠르게 과일/허브차, 녹차 등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줌

〈 브랜드별 차 시장 점유율 〉

(단위 : %)

브랜드명	제조회사	상 품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PG Tips	Unilever Bestfoods UK		23.1	22.8	23.5	22.3
Tetley	Tata Tea		21.5	21.8	21.1	19.8
기타 자사 라벨			15.7	14.6	14.8	14.3

Twinings	Twining & Co Ltd		11.2	11.3	11.4	11.1
Yorkshire	Betty&Taylors of Harrogate		7.3	7.4	7.7	7.4
Typhoo	Typhoo Tea		5.7	5.5	5.0	4.5
Clipper	Clipper Teas		0.8	0.8	0.7	0.7
Redbush tea	Redbush Tea		0.5	0.6	0.6	0.7
Pukka	Pukka Health		0.6	0.6	0.7	0.6
Teadirect	Cafedirect Ltd		0.8	0.7	0.6	0.5
Yogi	Yogi Tea Co		0.5	0.5	0.5	0.5

Health E Tea	Health E Tea	-	0.4	0.5	0.5	0.5
Ideal Health	Ideal Health Group Ltd	-	0.3	0.3	0.4	0.3
Lift	Typhoo Tea		0.4	0.3	0.3	0.3
DrStuarts	Only Natural Products Ltd		0.2	0.2	0.2	0.2
Brooke Bond	Global Tea & Commodities		0.1	0.2	0.2	0.2
Jacksons of Piccadilly	Jacksons of Piccadilly Ltd		0.2	0.2	0.1	0.1
Lyons	Tetley GB Ltd		0.2	0.1	0.1	0.1
London Fruit & Herb	Typhoo Tea Lt	-	0.2	0.1	0.1	0.1
기 타		-	10.3	11.3	11.4	15.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유로모니터 2011

제품 형태별 시장점유율

- 제품 형태별로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티백 형태의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96.0%에 달함
- 티백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대비 0.3% 증가하였으나 다른 형태의 제품들은 모두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음
- 이는 영국 소비자들이 제품에서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소비하기 편리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제품들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함

〈 제품 형태별 시장점유율 〉

(단위 : %)

구 분	2009년	2010년
잎 차(Loose tea)	2.8	2.7
티백(Teabags)	95.7	96.0
즉석 차(Instant tea)	1.4	1.2
캡슐형 차(Tea pods)	0.1	0.1
합 계	100.0	100.0

자료 : 민텔 2011

2. 유통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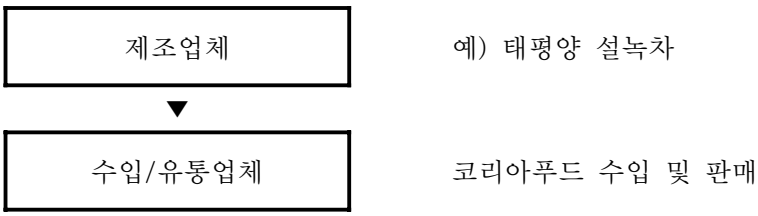
차 제품의 유통채널

- 차 제품의 유통채널은 크게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off-trade와 호텔, 레스토랑, 카페 등을 포함하는 각종 케이터링 업체 및 자판기를 통한 on-trade로 구분할 수 있음
- 유로모니터는 on-trade를 통해 판매되는 차의 양은 약 9% 정도라고 추정함
- 그러나 이 수치는 2009년에 비해 1%가 증가한 것으로 카페와 다른 형태의 on-trade 업체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 업체들이 커피와 더불어 녹차 및 다양한 종류의 과일/허브차, 기타 차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자판기를 통해 판매된 경우는 0.5% 미만이며 차의 맛과 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영국의 소비자들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판매량이 전년대비 11% 감소함
- 반면, 2010년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이 전체 차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 가량에 달함
-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 차 유통채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전년과 비교하면 약간 감소한 것으로, 이는 경제침체 때문에 더 많은 소비자들이 Lidl, Aldi와 같은 디스카운터에서 차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임

수입 제품의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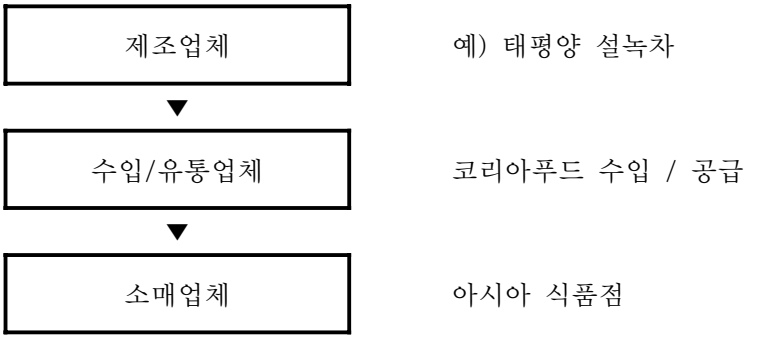
- 영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 차의 유통경로는 몇 단계의 유통단계를 거치느냐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가장 짧은 단계는 Wing Yip, Double Happiness, 코리아푸드와 같은 수입회사들이 자사 소유의 소매매장을 통해 바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임
- 이 유통경로는 수입회사가 소매매장을 가지고 소매업도 겸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통경로로 판매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수입 차 제품 유통경로 1 〉



- 두 번째 경우는 수입회사가 현지 유통업체 및 아시아 식품 소매점에 바로 공급하는 경우로 직접 수입을 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수입 차 제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이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유통 중임

〈 수입 차 제품 유통경로 2 〉



수입산의 진출 현황

- 수입산은 대형 슈퍼마켓 체인과 같은 현지 주류 유통채널이 아닌 아시아 식품 전문 소매점 또는 일부 차로 특화된 점포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음
- 또한 수입 원산지별로 차 제품의 종류에 차이가 있음
- 한국은 녹차와 더불어 유자차, 생강차, 쌍화차 등이 티백과 즉석 차 형태로 대부분 판매되고 있는 반면, 일본 제품들은 녹차와 우롱차를 중심으로 한 티

백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중국 제품들은 주로 녹차, 우롱차, 꽃잎차, 허브차 등이 티백과 잎 차(loose tea)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나 잎 차 제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중국산 및 일본산 주요 차 제품 〉

구 분	상 품	가 격	비 고
중 국		£0.60	- 자스민차 - 40g
		£0.60	- 녹 차 - 40g
		£1.85	- 우롱차 - 125g
		£1.85	- 꽃잎차 - 100g
		£1.60	- 허브차 - 100g
일 본		£3.00 - £4.23	- 녹차(잎 차) - 200g
		£2.13	- 녹차 티백 - 32g, 16개 들입
		£2.13	- 우롱차 티백 - 32g, 16개 들입

3. 소비동향

차 종류별 제품 침투율

- 차 종류별로 성별, 연령, 사회적 지위와 같은 소비자 특징에 따라 제품 침투율을 통해 어떤 특징을 가진 소비자들이 한국산 차 제품의 잠재 소비자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우선 차 종류별로 전체 침투율을 비교해 보면, 홍차의 제품 침투율은 78.3%에 달하고 있으나 과일/허브차는 20.4%, 녹차는 11%에 불과함
- 또한 홍차는 다량 섭취자가 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소량 섭취자는 10% 미만으로 나타난 반면, 과일/허브차는 소량 섭취자 9.0%, 다량 섭취자 3.7%로 나타나 소량 섭취자의 비율이 더 높음
- 홍차의 경우 남자와 여자의 음용률이 모두 78% 전후로 비슷한 수준이나 녹차는 여자가 남자보다 5% 가량 높으며 과일/허브차는 무려 10% 가량 높게 나타남

〈 차 종류별 제품 침투율 〉

구 분	홍 차				녹 차	과일/허브차			
	총 섭취자	다량 섭취자	중간 섭취자	소량 섭취자	총 섭취자	총 섭취자	다량 섭취자	중간 섭취자	소량 섭취자
합 계	78.3	54.0	17.0	7.3	11.0	20.4	3.7	7.7	9.0
성 별									
남자	77.9	54.0	17.0	6.9	8.7	15.0	2.0	5.8	7.2
여자	78.7	54.0	17.0	7.7	13.0	25.8	5.3	9.6	11.0
연 령									
15-24세	68	31.0	23.0	14	9.9	18.1	1.5	5.7	11.0
25-34세	77.4	45.0	23.0	9.4	15.0	26.4	5.1	9.2	12.0
35-44세	77.6	53.0	17.0	7.6	11.0	22.5	3.8	7.7	11.0
45-54세	81.4	61.0	16.0	4.4	11.0	22.9	5.3	8.8	8.8
55-64세	82.9	65.0	12.0	5.9	11.0	21.1	4.7	9.1	7.3
65세 이상	85.4	69.0	13.0	3.4	7.9	12.8	2.1	6.5	4.2

사회계층									
중상위층 이상	79.2	54.0	16.0	9.2	14.0	29.4	4.4	11.0	14.0
중산층	81.4	54.0	20.0	7.4	16.0	28.1	5.1	11.0	12.0
중하위층	76.5	52.0	17.0	7.5	12.0	22.5	4.6	8.0	9.8
숙련 노동계층	80.8	59.0	16.0	5.8	7.8	16.5	2.3	6.3	7.9
노동계층	77.1	52.0	17.0	8.1	6.2	12.2	2.1	4.7	5.3
최저층	81.9	58.0	16.0	7.9	5.3	11.7	2.7	4.8	4.2

자료 : 키노트 2009

- 연령을 기준으로 차 유형별 소비자들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홍차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섭취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다량 섭취자 군에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간 및 소량 섭취자 군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섭취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임

- 반면, 녹차와 과일/허브차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섭취율이 낮아져 25-34세 연령대에서는 녹차와 과일/허브차 섭취율이 각각 15%와 26.4%로 높았으나 65세 이상에서는 7.9%, 12.8%로 섭취율이 낮게 나타남

- 연령대가 높은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소비자들은 녹차와 과일/허브차의 수용도가 매우 낮음을 유추할 수 있음

- 사회계층별로 살펴보면 홍차의 경우 중상위층 이상 계층, 중하위층, 노동계층에서 섭취율이 낮게 나타나고 중산층과 숙련 노동계층에서는 섭취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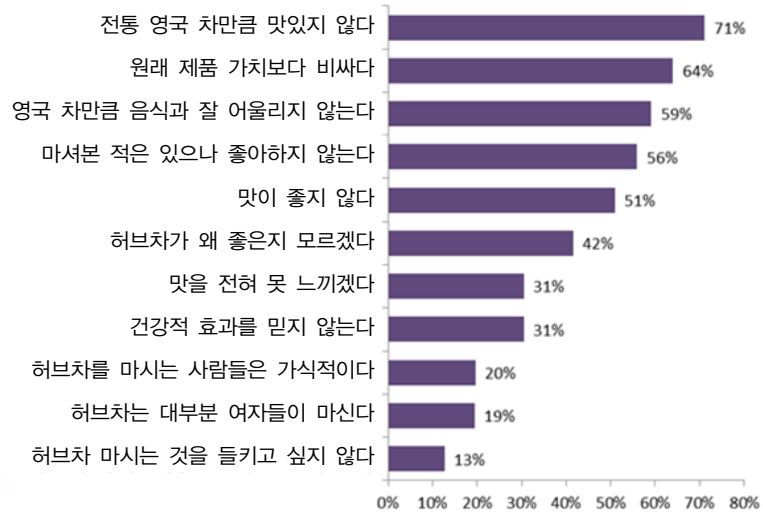
- 반면, 녹차는 중상위층, 중산층, 중하위층에서 10%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섭취율을 보이며, 과일/허브차도 이 상위 3개 계층에서 20% 이상의 높은 섭취율을 보임

- 따라서 녹차와 과일/허브차는 건강에 관심이 많고 경제적 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이 타깃이 될 수 있음

과일/허브차의 진입 장벽

- 민텔은 지난 6개월간 영국 전통차를 마신 적은 있으나 과일/허브차는 마신 적이 없는 16세 이상 433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질문을 통해 과일/허브차의 시장 진입 장벽이 무엇인지 파악함
- 위에서 살펴봤듯이 과일/허브차는 녹차의 타깃 또는 잠재 소비자들과 유사한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영국 현지 소비자들이 왜 녹차를 기피 또는 구입을 주저하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음
- 과일/허브차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은 현지 소비자들이 기존 영국의 전통 차만큼 맛있지 않다(71%)고 느끼는데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다음으로 과일/허브차가 원래 제품의 가치보다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64%)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영국 차만큼 음식과 어울리지 않는다(59%), 마셔본 적은 있으나 싫었다(56%), 맛이 좋지 않다(51%) 순으로 나타남
- 50% 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사항들은 대부분 제품의 특징을 전통 영국차와 비교함으로써 제품의 전환을 거부한 경우로, 영국의 차 문화를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소비자들의 보수적인 성향이 과일/허브차, 녹차의 구매 또는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반면, 허브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가식적이다(20%), 허브차는 대부분 여자들이 마신다(19%), 허브차 마시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다(13%) 등 과일/허브차의 섭취와 소비자 자신의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와 같은 현지 소비자들의 제품 이미지에 대한 편견은 광고 또는 홍보를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과일/허브차의 진입 장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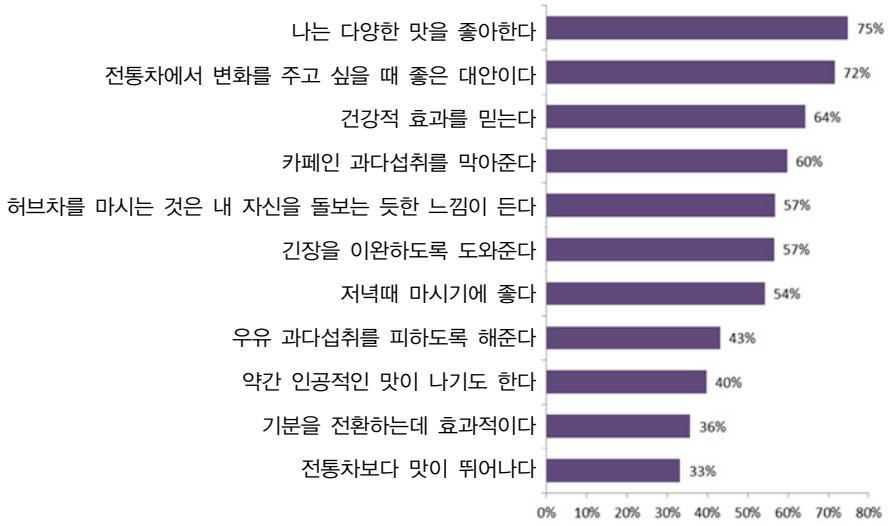


자료 : 민텔 2011

과일/허브차 섭취 이유

- 현재 과일/허브차를 마시는 소비자들의 섭취 이유를 살펴보면, 다양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일/허브차를 마신다는 응답이 7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전통차에서 변화를 주고 싶을 때 마실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72%, 건강적 효과를 믿는다 64%, 카페인 과다 섭취를 막아준다 60%, 허브차를 마시는 것은 내 자신을 돌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57%, 긴장을 이완하도록 도와준다 57%, 저녁 때 마시기에 좋다 54% 순으로 조사됨
- 과일/허브차를 마시는 이유를 바탕으로 잠재 타깃 소비자의 특성을 분류해 보면, 크게 새로운 맛을 원하는 소비자와 건강에 좋은 차를 원하는 소비자로 구분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소비자 성향에 따라 현재 영국의 과일/허브차 및 녹차 회사들은 2가지 이상의 과일 또는 허브를 섞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음

〈 과일/허브차를 마시는 이유 〉



자료 : 민텔 2011

- 또한 허브 차의 경우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특히 긴장 이완 및 숙면과 관련된 특징을 내세워 TV 광고를 하고 있음
- 반면, 과일/허브차의 맛이 전통 차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마신다는 응답은 33%로 가장 낮게 나타나 영국 소비자들이 녹차를 마시는 것은 맛 때문이 아닌 새로움, 건강을 이유로 마신다는 것을 더욱 뒷받침함

4. 수입동향

전체 수입규모

- 2010년 영국의 차 수입규모는 수입액 기준 4억 2천만 달러, 한화 약 4,412억 원, 수입량 기준 15만 톤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1%, 1.3%가 증가함

〈 전체 수입규모 현황 〉

(단위 : 천 달러, 톤, %)

국 가	2008년		2009년		2010년		2009-10년 성장률		2008-10년 성장률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전 체	364,065	157,592	369,016	147,864	420,880	149,823	14.1	1.3	15.6	-4.9
케 냐	175,315	78,248	199,842	81,935	210,943	78,750	5.6	-3.9	20.3	0.6
인 도	53,567	21,326	52,811	19,164	64,240	20,981	21.6	9.5	19.9	-1.6
중 국	22,025	7,695	20,873	6,881	26,739	8,025	28.1	16.6	21.4	4.3
인도네시아	17,822	9,794	21,723	10,512	23,551	9,996	8.4	-4.9	32.1	2.1
탄자니아	15,090	6,143	8,655	3,464	12,311	4,381	42.2	26.5	-18.4	-28.7
스리랑카	9,672	2,354	9,661	2,113	11,885	2,298	23.0	8.8	22.9	-2.4
말라위	9,830	6,040	6,162	3,111	9,550	4,865	55.0	56.4	-2.8	-19.5
폴란드	3,322	419	3,646	583	7,685	1,550	110.8	165.9	131.3	269.9
남아프리카 공화국	13,544	6,451	8,495	3,944	6,805	2,919	-19.9	-26.0	-49.8	-54.8
르완다	1,916	707	5,516	1,879	6,263	1,910	13.5	1.6	226.9	170.2
독 일	7,987	5,235	5,908	2,768	5,971	1,329	1.1	-52.0	-25.2	-74.6
아일랜드	2,972	548	1,841	1,205	5,787	1,008	214.3	-16.3	94.7	83.9
아랍 에미리트	5,042	1,854	3,986	1,582	4,802	1,592	20.5	0.6	-4.8	-14.1
미 국	4,120	593	3,230	381	4,184	332	29.5	-12.9	1.6	-44.0
스위스	2,537	1,047	2,063	865	3,125	1,327	51.5	53.4	23.2	26.7
짐바브웨	581	468	1,460	894	2,723	1,625	86.5	81.8	368.7	247.2
아르헨티나	5,718	4,868	3,209	3,566	2,718	2,945	-15.3	-17.4	-52.5	-39.5
네덜란드	2,062	236	1,213	119	1,740	438	43.4	268.1	-15.6	85.6
베트남	1,258	803	541	396	1,461	816	170.1	106.1	16.1	1.6
프랑스	1,030	205	1,154	287	1,008	342	-12.7	19.2	-2.1	66.8
일 본(21위)	626	55	748	109	833	54	11.4	-50.5	33.1	-1.8
한 국(50위)	149	13	132	25	29	2	-78.0	-92.0	-80.5	-84.6

자료 : GTA

* 주 : HS 코드 0902로 검색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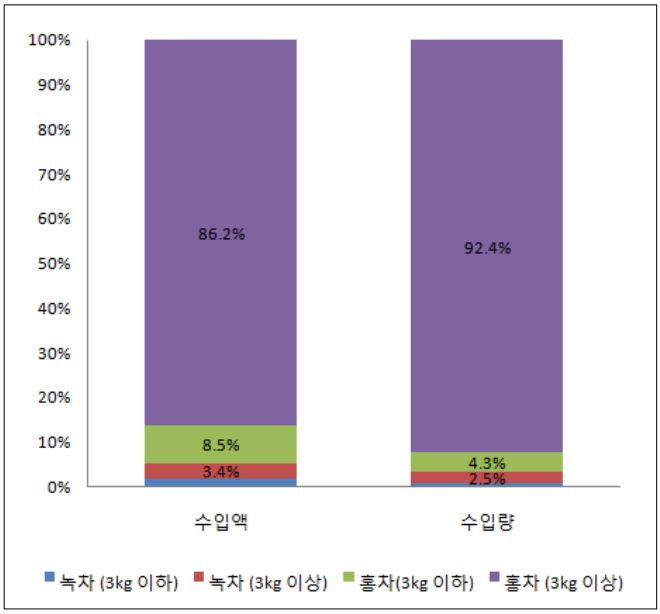
- 영국이 차를 가장 많이 수입한 원산지는 케냐로, 케냐에서 연간 전체 수입규모의 절반에 해당하는 2억 1천만 달러, 7.9만 톤 규모의 차를 수입함
- 케냐에 이어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탄자니아가 각각 수입규모 2-5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은 21위, 한국은 50위를 기록함
- 2008년 이후 최근 3년간의 수입규모 동향을 보면 지속적으로 수입액은 상승하고 있으나 수입량은 2008-09년에 다소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2009-10년에 소폭 상승, 2008-10년에 -4.9%의 성장률을 보임
- 수입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액이 증가한 것은 수입 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암시함
- 수입규모 1-2위인 케냐와 인도의 동향을 살펴보면 두 국가 모두 최근에 수입량은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증가함
- 케냐산 차의 경우, 2009-10년에 수입량은 3.9% 감소하였으나 수입액은 5.6% 증가하였으며, 인도산 차는 2008-10년에 수입량은 1.6% 감소하였으나 수입액은 거의 20% 가까이 증가하여 큰 폭의 원가 상승을 보임
- 또한 폴란드, 르완다, 짐바브웨산 차는 최근 3년간 수입량과 수입액 모두 10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그리고 한국산 차는 50% 이상 수입규모가 감소함

제품 유형별 수입 비중

- 제품 유형별로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홍차가 전체 수입액과 수입량의 95% 전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녹차의 비율은 5% 내외임
- 홍차 중에서도 3kg 이상의 홍차가 수입액의 86%, 수입량의 9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홍차의 비중이 높은 것은 영국의 차 역사와 관련이 높음
- 영국이 19세기 케냐 및 인도를 식민지화하면서 차가 다량으로 수입되어 귀족과 같은 일부 상위 계층에서만 즐기던 차가 대중들에게까지 널리 퍼지게 됨

- 이에 따라 홍차를 중심으로 차 문화가 형성된 반면, 녹차는 중국 문화가 유입되면서 함께 알려져 영국 소비자들에게 녹차는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홍차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제품 유형별 수입 비중 〉



자료 : GTA

제품 유형별 주요 수입 원산지

- 제품 유형별로 주요 수입 원산지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 녹차의 경우, 제품이 3kg 이하 또는 이상인지에 관계없이 중국산 녹차가 가장 큰 규모로 수입되고 있음
- 3kg 이하의 경우 중국산 녹차가 수입액으로는 45%, 수입량으로는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3kg 이상의 경우 무려 67%와 68%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산 제품은 2008년 이후 100% 이상의 큰 성장세를 보임
- 3kg 이하 제품에서는 중국 외에 독일, 미국, 일본 순으로 수입규모가 크게 나타났으며 한국산은 5천 달러 규모가 수입되어 29위를 기록함

- 3kg 이상 제품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인도와 케냐가 2, 3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이 6위, 한국은 6천 달러 규모로 수입되어 26위를 기록함

〈 제품 유형별 주요 수입 원산지 〉

(단위 : 천 달러, 톤, %)

구분	국가	2008년		2009년		2010년		2009-10년 성장률		2008-10년 성장률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녹차 (3kg 이하)	전 체	3,861	389	3,697	645	8,076	1,294	118.4	100.6	109.2	232.6
	중 국	741	93	476	80	3,594	420	655.0	425.0	385.0	351.6
	독 일	515	75	900	222	1,141	355	26.8	59.9	121.6	373.3
	미 국	545	33	495	39	689	55	39.2	41.0	26.4	66.7
	일본(4위)	314	38	246	26	480	39	95.1	50.0	52.9	2.6
	한국(29위)	0	0	0	0	5	0				
녹차 (3kg 이상)	전 체	16,536	4,473	14,618	3,364	14,413	3,715	-1.4	10.4	-12.8	-16.9
	중 국	10,988	2,482	9,054	1,871	9,654	2,543	6.6	35.9	-12.1	2.5
	인 도	625	228	778	258	1,149	366	47.7	41.9	83.8	60.5
	케 냐	905	499	836	183	815	151	-2.5	-17.5	-9.9	-69.7
	일본(6위)	223	11	272	13	283	11	4.0	-15.4	26.9	0.0
	한국(26위)	14	0	3	1	6	0	100.0	-100.0	-57.1	0.0
홍차 (3kg 이하)	전 체	26,537	6,559	32,073	7,851	35,635	6,423	11.1	-18.2	34.3	-2.1
	폴란드	3,213	408	3,420	527	7,199	1,427	110.5	170.8	124.1	249.8
	케 냐	3,258	1,327	12,080	3,894	5,576	1,756	-53.8	-54.9	71.1	32.3
	아일랜드	2,473	450	1,556	1,160	5,429	950	248.9	-18.1	119.5	111.1
홍차 (3kg 이상)	전 체	317,131	146,170	318,629	136,005	362,756	138,391	13.8	1.8	14.4	-5.3
	케 냐	171,151	76,422	186,922	77,857	204,553	76,843	9.4	-1.3	19.5	0.6
	인 도	51,053	20,891	49,362	18,503	60,742	20,331	23.1	9.9	19.0	-2.7
	인도네시아	14,745	8,254	21,112	10,174	23,021	9,773	9.0	-3.9	56.1	18.4
	중국(5위)	9,900	5,076	9,178	4,735	10,713	4,776	16.7	0.9	8.2	-5.9
	한국(44위)	135	14	128	25	19	2	-85.2	-92.0	-85.9	-85.7

자료 : GTA

* 주 : 순서대로 HS 코드 090210, 090220, 090230, 090240으로 검색함

- 홍차 3kg 이하에서는 폴란드가 100-200% 수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케냐와 아일랜드산 홍차 수입규모가 2-3위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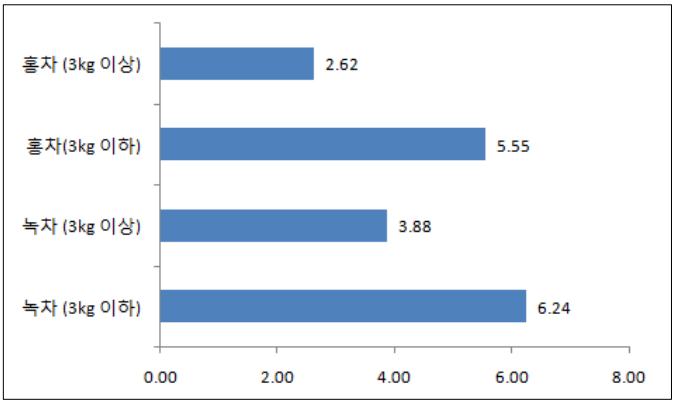
- 한국산은 수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홍차 3kg 이상에서는 케냐, 인도, 인도네시아산 제품이 가장 큰 규모로 수입되고 있으며 중국산 홍차 수입이 5위, 한국산이 44위를 기록함
- 한국산 차는 홍차 3kg 이상 제품의 수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8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08년 13.5만 달러에서 2010년 2만 5천 달러로 80% 이상 감소함

수입가격 비교

- 우선 제품 유형별로 수입가격을 비교해 보면, 녹차 3kg 이하가 6.24달러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홍차 3kg 이하가 5.55달러임
- 홍차와 녹차 모두 3kg 이상일 경우 수입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차보다는 녹차의 수입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음

〈 제품 유형별 수입가격 비교 〉

(단위 : 달러)



자료 : GTA

- 제품 유형별로 주요 원산지의 수입가격을 비교해 보면, 녹차 3kg 이하에서는 미국과 일본산 제품의 수입가격이 12달러 이상으로 나타나 전체 6.24달러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우며 독일에서 수입된 제품은 수입가격이 3.21달러에 불과함

- 녹차 3kg 이상에서는 일본산 제품이 무려 25.73달러로 전체 가격 3.88달러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한국산은 수입량이 적어 통계에 0달러로 기록되어 가격의 비교가 불가능함

- 한국이 영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차 종류인 홍차 3kg 이상의 경우, 주요 원산지의 수입가격이 2.00달러에서 3.00달러 사이에 속하는 반면, 한국산은 9.50달러로 3배 이상 높음

〈 제품 유형에 따른 국가별 수입가격 비교 〉

(단위 : 달러)

구분	국 가	수입가격
녹차 (3kg이하)	전 체	6.24
	중 국	8.56
	독 일	3.21
	미 국	12.53
	일 본(4위)	12.31
	한 국(29위)	0.00
녹차 (3kg이상)	전 체	3.88
	중 국	3.80
	인 도	3.14
	케 냐	5.40
	일 본(6위)	25.73
	한 국(26위)	0.00
홍차 (3kg이하)	폴란드	5.04
	케 냐	3.18
	아일랜드	5.71
홍차 (3kg이상)	전 체	2.62
	케 냐	2.66
	인 도	2.99
	인도네시아	2.36
	중 국(5위)	2.24
	한 국(44위)	9.50

자료 : GTA

5. 통관 및 수입 검사

통관 거부 사례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유럽 내 차제품의 통관 거부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영국으로의 차 수입 과정에서 중요한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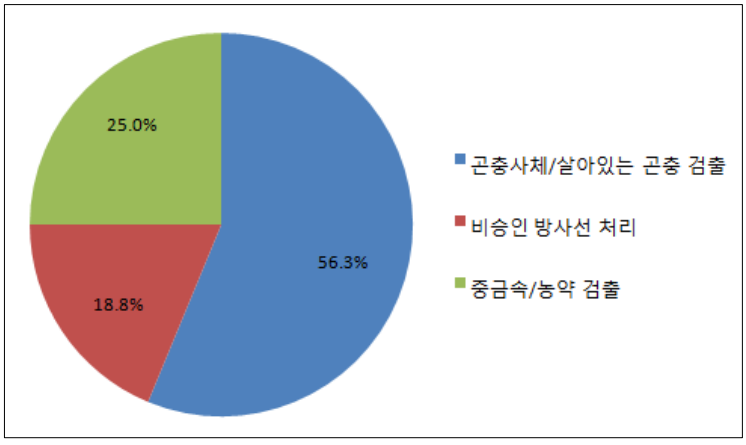
〈 차 제품 통관 거부 사례 〉

검역국가	원산지	문제사유	후속조치
이탈리아	인 도	민트차, 레몬 홍차, 얼그레이 홍차에서 fenpropathrin(0.12; 0.29; 0.28 mg/kg - ppm) 검출	반송 또는 폐기조치
이탈리아	중 국	녹차에서 lead(3 mg/kg - ppm)검출	반송조치
핀란드	스위스	유기농 허브차에서 dimethomorph(0.069 mg/kg - ppm) 및 fenpropidin(0.045 mg/kg - ppm) 검출	물리적/화학적 처리
폴란드	중 국	차에서 곤충 사체 검출	반송조치
폴란드	중 국	puerh fanning 차에서 곤충 사체 검출	반송조치
폴란드	중 국	puerh fanning 차에서 곤충 사체 검출	공식적 보류
폴란드	중 국	차에서 곤충 사체 검출	반송조치
폴란드	중 국	puerh fanning 차에서 진드기 사체 검출(51/100g)	공식적 보류
폴란드	중 국	녹차에서 곤충 사체 및 살아있는 곤충 검출	반송 또는 폐기조치
폴란드	중 국	puerh fanning 차에서 곤충 사체 및 살아있는 곤충 검출	폐기조치
루마니아	중 국	차의 비승인 방사선 처리	반송조치
핀란드	중 국	백차에서 Salmonella Singapore(present/25g) 및 faecal-streptococci(1600000CFU/g) 검출	반송조치
루마니아	중 국	차의 비승인 방사선 처리	반송조치
루마니아	중 국	차의 비승인 방사선 처리	폐기조치
폴란드	중 국	puerh 차에서 곤충 사체 검출(58/100g)	반송조치
폴란드	중 국	puerh 차에서 곤충 사체 검출	반송조치

자료 : 유럽 연합 식품 및 사료 긴급 경보 시스템 RASFF 웹사이트

- 통관 거부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크게 곤충 사체 또는 살아있는 곤충 검출, 비승인 방사선 처리, 중금속/농약 검출의 3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중 곤충 사체 또는 살아있는 곤충 검출이 5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체에서는 수출하기 이전에 제품에 곤충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와 확인이 요구됨
- 또한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연합 지역에서는 차 제품에 대한 방사선 처리는 승인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품에 이와 같은 처리를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중금속과 농약의 경우는 종류별로 최대 허용 잔류량을 설정해 놓고 있으므로, 차 제품에 대한 중금속과 농약 최대 허용 잔류량을 살펴보고자 함

〈 통관 거부 사례 유형별 비중 〉



자료 : 유럽 연합 식품 및 사료 긴급 경보 시스템 RASFF 웹사이트

농약 잔류 허용량(MRLs)

- 유럽연합의 농약 데이터베이스에서 차 제품에 대한 농약별 최대 허용 잔류량을 검색한 결과, 400여 개의 농약에 대해 최대 허용 잔류량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함

〈 차 제품의 농약별 최대 허용 잔류량 〉

농약명	MRLs (mg/kg)	농약명	MRLs (mg/kg)	농약명	MRLs (mg/kg)
1,1-dichloro-2,2-bis	0,1	Diphenylamine	0,05	Mevinphos	0,02
1,2-dibromoethane	0,02	Diquat	0,1	Milbemectin	0,1
1,2-dichloroethane	0,02	Disulfoton	0,05	Molinate	0,1
1,3-Dichloropropene	0,05	Dithianon	0,01	Monocrotophos	0,1
1-Naphthylacetamide	0,05	Dithiocarbamates	0,1	Monolinuron	0,1
1-Naphthylacetic acid	0,05	Diuron	0,1	Monuron	0,1
1-methylcyclopropene	0,02	Dodine	0,2	Myclobutanyl	0,05
2,4 DB	0,1	Emamectin benzoate B1a	0,02	Napropamide	0,05
2,4,5-T	0,05	Endrin	0,01	Nicosulfuron	0,05
2,4-D	0,1	Epoxiconazole	0,05	Nitrofen	0,02
2-phenylphenol	0,1	Ethalfluralin	0,02	Novaluron	0,01
Abamectin	0,02	Ethirimol	0,05	Orthosulfamuron	0,01
Acephate	0,05	Ethofumesate	0,1	Oryzalin	0,02
Acequinocyl	0,02	Ethoprophos	0,02	Oxadiargyl	0,05
Acetamiprid	0,1	Ethoxyquin	0,05	Oxadiazon	0,05
Acetochlor	0,01	Ethoxysulfuron	0,1	Oxadixyl	0,02
Acibenzolar-S-methyl	0,05	Ethylene oxide	0,2	Oxamyl	0,02
Aclonifen	0,05	Etofenprox	0,01	Oxasulfuron	0,1
Acrinathrin	0,05	Etoxazole	0,05	Oxycarboxin	0,05
Alachlor	0,05	Etridiazole	0,05	Oxydemeton-methyl	0,05
Aldrin and Dieldrin	0,02	Famoxadone	0,05	Oxyfluorfen	0,05
Ametoctradin	0,01	Fenamidone	0,05	Paclobutrazol	0,02
Amidosulfuron	0,05	Fenarimol	0,05	Paraquat	0,05
Aminopyralid	0,02	Fenazaquin	10	Parathion	0,1
Amisulbrom	0,01	Fenbuconazole	0,05	Parathion-methyl	0,05
Amitraz	0,1	Fenbutatin oxide	0,1	Penconazole	0,1
Amitrole	0,02	Fenchlorphos	0,1	Pencycuron	0,05
Anilazine	0,05	Fenhexamid	0,1	Pendimethalin	0,1
Aramite	0,1	Fenitrothion	0,5	Penoxsulam	0,02
Asulam	0,05	Fenoxaprop-P	0,1	Permethrin	0,1
Atrazine	0,1	Fenoxycarb	0,05	Pethoxamid	0,02
Azadirachtin	0,01	Fenpropathrin	2	Phenmedipham	0,1
Azimsulfuron	0,1	Fenpropidin	0,05	Phenothrin	0,05

Azinphos-ethyl	0,05	Fenpropimorph	0,1	Phorate	0,1
Azinphos-methyl	0,1	Fenpyroximate	0,1	Phosalone	0,1
Azocyclotin & Cyhexatin	0,1	Fentin acetate	0,1	Phosmet	0,1
Azoxystrobin	0,1	Fentin hydroxide	0,1	Phosphamidon	0,02
Barban	0,1	Fenvalerate & Esfenvalerate	0,05	Phosphines & phosphides	0,05
Beflubutamid	0,1	Fenvalerate & Esfenvalerate	0,05	Phoxim	0,1
Benalaxyl	0,1	Fipronil	0,005	Picloram	0,01
Benfluralin	0,05	Flazasulfuron	0,02	Picolinafen	0,1
Benfuracarb	0,1	Flonicamid	0,05	Picoxystrobin	0,1
Bentazone	0,1	Florasulam	0,1	Pinoxaden	0,05
Benthiavalicarb	0,01	Fluazifop-P-butyl	0,1	Pirimicarb	0,05
Bifenazate	0,02	Fluazinam	0,05	Pirimiphos-methyl	0,05
Bifenox	0,05	Flubendiamide	0,02	Prochloraz	0,1
Bifenthrin	5	Flucycloxuron	0,05	Procymidone	0,1
Binapacryl	0,1	Flucythrinate	0,1	Profenofos	0,1
Biphenyl	0,05	Fludioxonil	0,05	Profoxydim	0,1
Bitertanol	0,1	Flufenacet	0,05	Prohexadione	0,1
Bixafen	0,01	Flufenoxuron	15	Propachlor	0,05
Boscalid	0,5	Flufenzin	0,05	Propamocarb	0,2
Bromide ion	70	Flumioxazine	0,1	Propanil	0,1
Bromophos-ethyl	0,1	Fluometuron	0,02	Propaquizafop	0,05
Bromopropylate	0,1	Fluopicolide	0,02	Propargite	5
Bromoxynil	0,1	Fluoride ion	350	Propham	0,1
Bromuconazole	0,05	Fluoroglycofene	0,02	Propiconazole	0,1
Bupirimate	0,05	Fluoxastrobin	0,1	Propineb	0,1
Buprofezin	0,05	Flupyrsulfuron-methyl	0,05	Propisochlor	0,01
Butralin	0,02	Fluquinconazole	0,05	Propoxur	0,1
Butylate	0,05	Flurochloridone	0,1	Propoxycarbazone	0,05
Camphechlor	0,1	Fluroxypyr	0,1	Propyzamide	0,05
Captafol	0,1	Flurprimidole	0,02	Proquinazid	0,05
Carbaryl	0,1	Flurtamone	0,05	Prosulfocarb	0,05
Carbetamide	0,05	Flusilazole	0,05	Prosulfuron	0,1
Carbofuran	0,05	Flutolanil	0,05	Prothioconazole	0,02
Carbosulfan	0,1	Flutriafol	0,05	Pymetrozine	0,1
Carboxin	0,05	Folpet	0,05	Pyraclostrobin	0,05
Carfentrazone-ethyl	0,02	Foramsulfuron	0,05	Pyraflufen-ethyl	0,05

Cartap	0,1	Forchlorfenuron	0,05	Pyrasulfutole	0,02
Chlorantraniliprole (DPX E-2Y45)	0,02	Formetanate	0,05	Pyrazophos	0,1
Chlorbenside	0,1	Formothion	0,05	Pyrethrins	0,5
Chlorbufam	0,1	Fosetyl-Al	5	Pyridaben	0,05
Chlordane	0,02	Fosthiazate	0,05	Pyridalyl	0,02
Chlordecone	0,02	Fuberidazole	0,05	Pyridate	0,1
Chlorfenapyr	50	Furathiocarb	0,1	Pyrimethanil	0,1
Chlorfenson	0,1	Furfural	1	Pyriproxyfen	0,05
Chloridazon	0,1	Gibberellic acid	5	Pyroxsulam	0,02
Chlormequat	0,1	Glufosinate-ammonium	0,1	Quinalphos	0,1
Chlorobenzilate	0,1	Glyphosate	2	Quinclorac	0,1
Chloropicrin	0,02	Guazatine	0,1	Quinmerac	0,1
Chlorothalonil	0,1	Halosulfuron methyl	0,02	Quinoxyfen	0,05
Chlorotoluron	0,05	Haloxyfop including haloxyfop-R	0,05	Quintozene	0,05
Chloroxuron	0,1	Heptachlor	0,02	Quizalofop, incl. quizalfop-P	0,05
Chlorpropham	0,1	Hexachlorobenzene	0,02	Resmethrin	0,2
Chlorpyrifos	0,1	Hexachlorociclohexane	0,02	Rimsulfuron	0,1
Chlorpyrifos-methyl	0,1	Hexaconazole	0,05	Rotenone	0,02
Chlorsulfuron	0,05	Hexythiazox	0,05	Silthiofam	0,1
Chlorthal-dimethyl	0,01	Hymexazol	0,05	Spinetoram(XDE-175)	0,1
Chlorthiamid	0,05	Imazalil	0,1	Spinosad	0,05
Chlozolinate	0,1	Imazamox	0,1	Spirodiclofen	0,05
Chromafenozide	0,02	Imazaquin	0,05	Spiromesifen	0,02
Cinidon-ethyl	0,1	Imazosulfuron	0,02	Spirotetramat	0,1
Clethodim	0,1	Imidacloprid	0,05	Spiroxamine	0,1
Clodinafop & S-isomers	0,05	Indoxacarb	0,05	Sulcotrione	0,05
Clofentezine	0,05	Iodosulfuron-methyl	0,05	Sulfosulfuron	0,1
Clomazone	0,02	Ioxynil	0,1	Sulfuryl fluoride	0,02
Clopyralid	0,5	Ipconazole	0,02	Sulphur	0
Clothianidin	0,05	Iprodione	0,1	TEPP	0,02
Copper compounds (Copper)	40	Iprovalicarb	0,1	Tau-Fluvalinate	0,01
Cyanamide	0,1	Isoproturon	0,1	Tebuconazole	0,05
Cyazofamid	0,02	Isopyrazam	0,01	Tebufenozide	0,1

Cyclanilide	0,1	Isoxaben	0,02	Tebufenpyrad	0,1
Cycloxydim	0,05	Isoxaflutole	0,1	Tecnazene	0,1
Cyflufenamid	0,05	Kresoxim-methyl	0,1	Teflubenzuron	0,05
Cyfluthrin	0,1	Lactofen	0,02	Tefluthrin	0,05
Cyhalofop-butyl	0,05	Lambda-Cyhalothrin	1	Tembotrione	0,05
Cymoxanil	0,05	Lenacil	0,1	Tepraloxydim	0,1
Cypermethrin	0,5	Lindane	0,05	Terbufos	0,01
Cyproconazole	0,05	Linuron	0,1	Terbuthylazine	0,05
Cyprodinil	0,05	Lufenuron	0,02	Tetraconazole	0,02
DDT	0,2	MCPA & MCPB	0,1	Thiabendazole	0,1
DNOC	0,1	Malathion	0,5	Thiacloprid	10
Dalapon	0,1	Maleic hydrazide	0,5	Thiamethoxam	0,1
Daminozide	0,1	Mandipropamid	0,02	Thifensulfuron-methyl	0,1
Dazomet	0,02	Mecarbam	0,1	Thiobencarb	0,1
Deltamethrin (cis-deltamethrin)	5	Mecoprop	0,1	Thiram	0,2
Desmedipham	0,1	Mepanipyrim	0,02	Tolclofos-methyl	0,1
Diallate	0,1	Mepiquat	0,1	Tolylfluanid	0,1
Diazinon	0,02	Mepronil	0,1	Topramezone	0,02
Dicamba	0,05	Meptyldinocap	0,1	Tralkoxydim	0,05
Dichlobenil	0,05	Mercury compounds	0,02	Tri-allate	0,1
Dichlorprop	0,1	Mesosulfuron-methyl	0,02	Triadimefon & triadimenol	0,2
Dichlorvos	0,02	Mesotrione	0,1	Triazophos	0,02
Diclofop	0,05	Metaflumizone	0,1	Tribenuron-methyl	0,02
Dicloran	0,01	Metalaxyl & metalaxyl-M	0,1	Trichlorfon	0,1
Dicofol	20	Metaldehyde	0,1	Triclopyr	0,1
Diethofencarb	0,05	Metamitron	0,1	Tricyclazole	0,05
Difenoconazole	0,05	Metazachlor	0,2	Tridemorph	20
Diflubenzuron	0,1	Metconazole	0,02	Trifloxystrobin	0,05
Diflufenican	0,05	Methacrifos	0,1	Triflumizole	0,1
Dimethachlor	0,02	Methamidophos	0,02	Triflumuron	0,05
Dimethenamid-p	0,02	Methiocarb	0,1	Trifluralin	0,1
Dimethipin	0,1	Metholachlor & metholachlor-S	0,1	Triflusulfuron	0,05
Dimethoate	0,05	Methomyl & Thiodicarb	0,1	Trimethyl-sulfonium cation	0,05

Dimethomorph	0,05	Methoprene	0,05	Trinexapac	0,05
Dimoxystrobin	0,01	Methoxychlor	0,1	Tritosulfuron	0,02
Diniconazole	0,05	Methoxyfenozide	0,05	Valifenalate	0,02
Dinocap	0,1	Metosulam	0,01	Vinclozolin	0,1
Dinoseb	0,1	Metrafenone	0,05	Ziram	0,2
Dinoterb	0,1	Metribuzin	0,1	Zoxamide	0,05
Dioxathion	0,1	Metsulfuron-methyl	0,1		

자료 : 유럽연합 농약 데이터베이스, EU Pesticide Database

FTA 체결에 따른 관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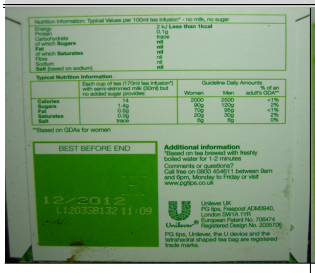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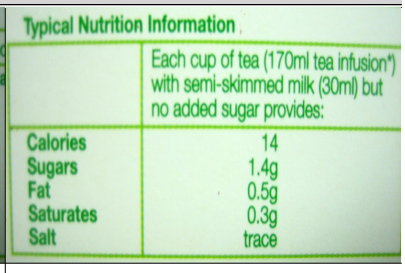
- FTA 체결 전에는 차 종류 중 3킬로그램 미만의 녹차에만 3.2%의 관세율이 적용되었고 다른 종류의 차 제품은 무관세였음
- 따라서 유럽연합과의 FTA 체결로 인해 3kg 미만의 녹차 가격이 인하되어 한국산 차의 가격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판단됨

라벨링

- 일반 제품의 라벨 의무표기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제품 이름
  - 성분 및 성분 함량 또는 성분 카테고리 : 함량이 높은 순으로 표기, 성분 카테고리 및 특정 성분 순으로 표기
  - 알레르기 유발 성분
  - 유효기간 및 보관방법
  - 제조회사 이름 및 주소 또는 유럽 연합 내 수입/판매업자
  - 순 중량
  - 영양성분
  - 원산지(원료의 일부가 제품의 원산지와 달라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을 경우)

〈 라벨링 예시 〉

측면 1	측면 2	측면 3	측면 4
제품명 및 개수	Rainforest Alliance Certification에 대한 설명	신제품	제품 특징 및 중량

하단		
		
영양정보, 유통기한, 제조사	영양정보 표기 시 탄수화물과 지방의 경우, 출처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 필수	칼로리, 설탕, 지방, 포화지방, 염분 함량 표기 등 기타 영양정보

6. 한국산 수출 확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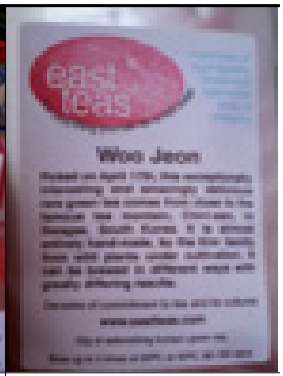
차 문화 수출을 통한 제품의 수출

- 영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차 문화를 중요시 함
- 그래서 영국 제품들을 보면 제품 소개에 'classic', 'traditional', 'speciality'라는 단어들과 함께 얼마나 오랫동안 차를 전문으로 전통을 쌓아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고 있음
- 따라서 영국 소비자들에게 한국의 차를 중국산 차와 다른 보다 고급스럽고, 고품질의 차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차 문화를 보급함과 동시에 차 제품을 수출하는 전략이 필요함
- 런던에 위치한 보로마켓에서 한국 차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한국산 다기 세트와 함께 한국 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라벨에 얼마나 특별한 곳에서 생산이 되고(famous tea mountain, Chiri-san, 지리산), 어떻게 수확됐는지(almost entirely hand-made), 누가 수확했는지(Kim's family)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넣어 보다 고급스럽고 신비로운 동양의 차 제품으로 마케팅하고 있음
- 런던에 위치한 재영 한국 문화원과 같은 기관을 통해 한국의 차 문화 체험 행사 등을 실시하고 차 문화를 보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Borough 마켓에서 판매 중인 한국산 차 〉

다기세트 판매

한국 차 제품



제품에 대한 설명

현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춘 신제품 개발

- 앞에서 살펴본 영국의 차 신제품과 홍차 외에 녹차 또는 과일/허브 차를 마시는 소비자들의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 현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단지 녹차가 아니라 녹차에 영국 소비자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선호하는 여러 가지 향 또는 맛이 가미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야 함

- 예를 들어, 단맛을 선호하는 영국 소비자들을 위해 녹차에 꿀을 넣은 제품이라든지, 후각이 민감한 영국 소비자들을 감안해 녹차에 레몬, 생강 등의 다양한 천연 재료를 가미하여 향이 첨가된 차를 개발한다면 쉽게 현지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음

'건강', '유기농', '편리성'

- 영국 차 시장에서의 화두는 '건강'과 '유기농'으로, 홍차가 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녹차와 과일/허브차가 최근 급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현지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 이와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영국 소비자들은 아무리 건강에 좋고 유기농이라고 하더라도 마시는데 편리하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는 성향을 보임

- 또한 홍차 외의 다른 과일/허브차 또는 녹차를 마시는 이유는 건강, 구체적으로는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섭취를 줄이기 위함과 긴장 이완과 같은 정신적 건강을 위함임

- 이에 따라 영국의 대표적인 차 제품의 패키지에 제품 특성에 관해 가장 많이 적혀 있는 단어를 꼽는다면 'refreshing', 'relax', 'aroma'임

- 제품 개발 시와 라벨링에 제품에 대한 설명을 적을 때 이와 같은 사항들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음

- 한편, 한국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생강차, 쌍화차와 같은 분말 형태의 즉석 차의 경우, 편리성은 뛰어나지만 현지 소비자들은 인공 또는 가공적인 제품이라고 인식하여 소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제품의 편리성으로 현지 소비자들의 제품 소비를 장려하면서도 제품의 품질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티백 형태로 제품을 제조하는 것임

소용량 제품

- 영국 소비자들에게 홍차는 익숙하기 때문에 티백 제품의 경우 티백이 50-100개 이상 들어 있는 대용량 사이즈의 제품도 판매되고 있음
- 그러나 홍차 외의 다른 티백 제품들은 적으면 16개에서 25개 들입의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로만 판매되고 있음
- 이는 소비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할 때 수반되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임

케이터링 업체를 이용한 수출

- 영국의 대표적인 커피숍 체인으로는 Costa와 Pret A Manager가 있으며 미국계 업체인 Starbucks, 이탈리아계 Cafe Nero도 전역에 걸쳐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대규모 체인 업체를 통하여 수출을 타진하는 등 기존 아시아 식품점에서 벗어나 유통영역을 넓히는 노력이 요구됨

박람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

- 수입 및 공급업체를 발굴할 수 있는 영국의 식음료 관련 박람회로는 짝수해 3월에 Birmingham NEC에서 개최되는 Food & Drink Expo와 홀수해 3월에 London ExCel에서 개최되는 International Food & Drink Event가 있음

구 분	Food & Drink Expo	International Food & Drink Event
개최시기	짝수해 3월 (2012년 3월 25-27일)	홀수해 3월 (2013년 3월 17-20일)
장 소	Birmingham NEC	London ExCel
웹사이트	www.foodanddrinkexpo.co.uk	www.ife.co.uk

산업잡지를 통한 회사 및 제품 광고

- 관련 산업 잡지에 광고를 하여 현지 음료 전문 수입업체 또는 공급업체에게 회사 및 제품을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음
- 영국의 식음료 전문 산업 잡지로는 the Grocer(www.thegrocer.co.uk)와 Food & Drink International(www.fdiforum.net)이 있음

7. 참고자료

관련 협회 및 정부기관

Defra(영국 농식품부에 해당) Nobel House 17 Smith Square London SW1P 3JR Tel : +44 (0)207 238 6951 www.defra.gov.uk defra.helpline@defra.gsi.gov.uk	Food Standard Agency(식품 표준청) Aviation House 125 Kingsway London WC2B 6NH Tel : +44(0)20 7276 8000 www.food.gov.uk helpline@foodstandards.gsi.gov.uk
International Tea Committee Ltd 1 Carleton House Terrace London, SW1Y 5DB Tel : 020-7839 5090 Fax : 020-7839 5052 http://www.inttea.com info@inttea.com	United Kingdom Tea Council 9 The Courtyard Gowan Avenue London, SW6 6RH Tel : 020-7371 7787 Fax : 020-7371 7958 http://www.tea.co.uk info@teacouncil.co.uk

주요 차 회사

Caf direct PLC/Teadirect City Cloisters Suite B2 196 Old Street London, EC1V 9FR Tel : 020-7490 9520 Fax : 020-7490 9521 info@cafedirect.co.uk http://www.cafedirect.co.uk	Clipper Teas Ltd Unit 4 Beaminster Business Park Broadwindsor Road Beaminster Dorset, DT8 3PR Tel : 01308-863 344 Fax : 01308-863 847 http://www.clipper-teas.com
R Twining and Company Ltd/ Jacksons of Piccadilly Ltd Walworth Industrial Estate South Way Andover Hampshire, SP10 5AQ Tel : 01264-334 477 Fax : 01264-337 774 http://www.twinings.com http://www.jacksons-of-piccadilly.com	Ty.phoo Tea Ltd PO Box 8 Pasture Road Moreton Wirral Merseyside, CH46 8XF Tel : 0151-522 4000 http://www.typhoo.com
Tetley GB Ltd 325 Oldfield Lane North Greenford Middlesex, UB6 0AZ Tel : 020-8338 4000 Fax : 020-8338 4414 http://www.tetley.co.uk hhtp://www.teaexperts.co.uk	

프랑스

1. 시장개요 ····· 41

2. 유통동향 ····· 48

3. 수입동향 ····· 52

4. 통관 및 수입검사 ····· 59

5. 한국산 수출 확대 방안 ····· 66

1. 시장개요

차 종류별 시장규모

- 2010년 프랑스의 차 시장규모는 12,246톤으로 전년대비 0.5%가 증가함
- 2005년 이후 최근 6년간의 시장규모 동향을 살펴보면, 2005년 1만 1천 톤을 기록한 이후 2008년에는 처음으로 1만 2천 톤을 넘어섰으며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성장하여 2010년에 12,246톤을 기록함
- 이는 연 평균 1.2%씩 성장한 것으로 6년에 걸쳐 7.1%가 성장함
- 차 종류별로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홍차는 5천 톤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과일/허브차 약 4천 3백톤, 녹차 약 2천 톤, 즉석차 685톤, 기타차 240톤 순임
- 이 중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제품은 녹차인데, 2009-10년에는 7.2%, 2005-10년에는 무려 38.5%라는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
- 녹차가 이와 같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프랑스 시장의 건강과 웰빙 트렌드 때문으로 소비자들이 녹차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등 여러 면에서 건강에 좋다고 인지하면서 녹차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음

〈 차 종류별 시장규모(판매량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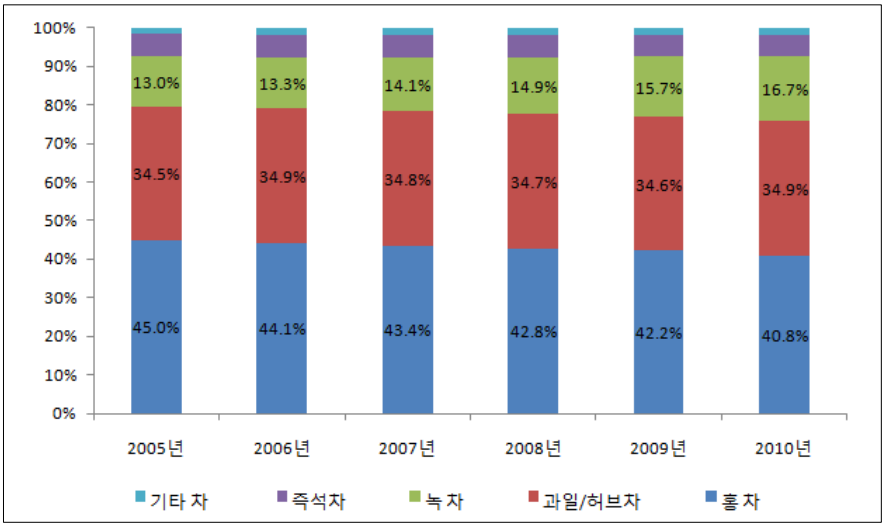
(단위 : 톤,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09-10년	2005-10년
홍 차	5,144.0	5,129.4	5,142.2	5,149.5	5,138.9	4,991.9	-2.9	-3.0
과일/허브차	3,941.0	4,055.0	4,125.9	4,170.7	4,216.4	4,278.8	1.5	8.6
녹 차	1,480.4	1,551.4	1,670.9	1,792.9	1,913.0	2,050.7	7.2	38.5
즉석차	678.0	690.2	697.8	691.5	688.8	684.6	-0.6	1.0
기타차	186.9	205.2	212.4	219.0	231.9	239.9	3.4	28.4
전 체	11,430.3	11,631.3	11,849.2	12,023.6	12,189.0	12,245.9	0.5	7.1

자료 : 유로모니터 2011

- 녹차와 더불어 기타 차의 시장규모도 최근 6년간 28.4%가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성장했는데, 이는 최근 약용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치커리, 버베나(verbena)와 같은 식물을 활용한 차의 출시에 기인한 것으로 건강과 웰빙이 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음
- 반면, 시장규모가 가장 큰 홍차의 경우 2008년 이후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08년에는 최근 6년 중 최고치인 5,150톤에 달하였으나 이후 2008-09년에는 0.2%, 2009-10년에는 2.9%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 전문가들은 이러한 홍차의 시장규모 감소 추세가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함
- 첫째는 홍차 시장 자체가 성숙기에 돌입하면서 주요 업체들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기보다는 단순히 브랜드를 추가하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구매를 촉진시키지 못하기 때문임
- 둘째는 새로운 경쟁 제품의 출시에 따른 여파로 분석되고 있는데, 최근 네스프레소(Nespresso)와 네스카페 돌체 구스토(Nescafe Dolce Gusto)와 같은 혁신적인 캡슐 커피 제품의 출시에 따라 에스프레소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홍차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홍차 시장의 축소는 다음의 차 종류별 시장점유율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음
- 2005년 홍차의 시장점유율은 45%에 달하였으나 해마다 0.4%-0.9%씩 감소하면서 2010년에는 40.8%를 기록하여 총 4.2%가 감소함
- 반면, 최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녹차의 시장점유율은 2005년 13%에서 2010년 16.7%로 3.7%가 증가함
- 홍차 외에 즉석차의 시장규모도 정체 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즉석차는 과일/허브차 및 녹차와 비교하여 보다 인공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 차 종류별 시장점유율(판매량 기준) 〉



자료 : 유로모니터 2011

- 201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프랑스의 차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3%가 증가한 4억 3천만 유로, 한화 약 6,767억 원임
- 매출액 기준 시장규모도 판매량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판매량 기준 시장규모보다 시장규모 성장률이 높아 판매가격이 더 빨리 상승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홍차의 경우, 2005년 이후 시장규모가 165백만 유로 ~ 170백만 유로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반해 과일/허브 차의 경우, 2005년 139백만 유로에서 연평균 2.5%씩 성장하며 2010년에는 약 160백만 유로에 달함
- 이와 같은 시장규모 성장에 따라 과일/허브 차는 홍차와의 격차를 불과 6백만 유로로 줄임
- 또한 녹차도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시장규모 60백만 유로에서 2008년에는 70백만 유로를 넘었으며 2010년에는 86.5백만 유로를 기록하여 6년간 43.2%가 증가함
- 녹차와 더불어 기타차도 최근 6년간 56.5%가 성장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즉석차는 동기간에 10.9%가 감소함

〈 차 종류별 시장규모(매출액 기준) 〉

(단위 : 백만 유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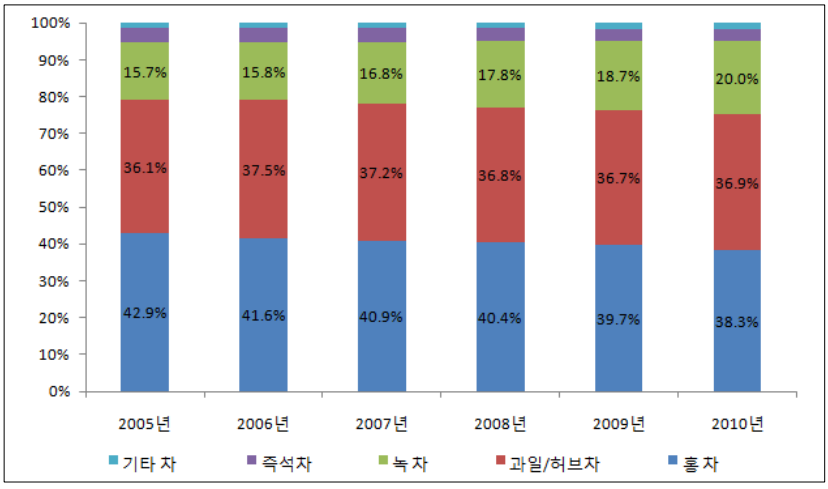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9-'10년 성장률	'05-'10년 성장률
홍 차	165.4	166.3	167.6	170.3	169.7	165.6	-2.4	0.1
과일/허브차	139.1	150.1	152.6	154.8	156.7	159.6	1.9	14.7
녹 차	60.4	63.0	69.0	75.0	79.7	86.5	8.5	43.2
즉석차	15.6	15.3	15.0	14.8	14.4	13.9	-3.5	-10.9
기타차	4.6	5.2	5.7	6.2	6.7	7.2	7.5	56.5
합 계	385.1	400.0	409.9	421.1	427.1	432.7	1.3	12.4

자료 : 유로모니터 2011

- 이와 같은 차 종류별 시장규모 성장 또는 축소에 따라 시장점유율에도 변화가 있는데, 홍차의 시장점유율은 2005년 42.9%에서 2010년 38.3%로 축소된 반면, 동기간에 과일/허브차는 36.1%에서 36.9%로, 녹차는 15.7%에서 20.0%로 증가함

- 녹차의 시장점유율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프랑스 시장에서 홍차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차 종류별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 〉



자료 : 유로모니터 2011

차 브랜드별 시장점유율

- 차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Unilever의 Lipton이 약 37%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Lipton의 높은 시장점유율은 이 브랜드를 통해 판매 중인 폭넓은 제품들 때문으로, 홍차에서 허브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음
- 또한 Lipton은 홍보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피라미드 형의 티백에 들어있는 차를 출시하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함

〈 브랜드별 차 시장 점유율 〉

(단위 : %)

브랜드명	회사명	상 품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Lipton	Unilever France		37.6	36.8	36.8	36.5
Twinings	Foods International		16.3	16.5	16.8	17.1
기타 자사라벨	–	–	5.7	5.7	5.9	5.9
Tetley	Solinest		4.3	4.4	4.4	4.2
La Tisanière	Foods International		3.7	3.7	3.8	3.9

Bjorg	Distriborg France		3.1	3.3	3.5	3.7
Auchan (자사라벨)	Auchan France		1.8	1.8	1.8	1.8
Les Infuselles	Solinest		2	1.9	1.8	1.8
Pagès	Pagès		1.5	1.5	1.6	1.6
Leclerc (자사라벨)	Galec-Centre Distributeur Edouard Leclerc	-	1.3	1.3	1.4	1.4
Carrefour (자사라벨)	Carrefour France	-	1	1	1	1
Intermarché (자사라벨)	ITM Entreprises	-	0.6	0.6	0.6	0.6
Pause Minceur	Laboratoires Forté	-	0.2	0.2	0.2	0.2
Tisane Minceur	laboratoires Médiflor	-	0.2	0.2	0.2	0.2
Médiflor Infusion Olivier	Merck Médication Familiale		0.1	0.1	0.1	0.1
Thé Ligne	Laboratoires Physcience	-	0.1	0.1	0.1	0.1
기 타		-	20.5	20.9	20	19.9
전 체		-	100	100	100	100

자료 : 유로모니터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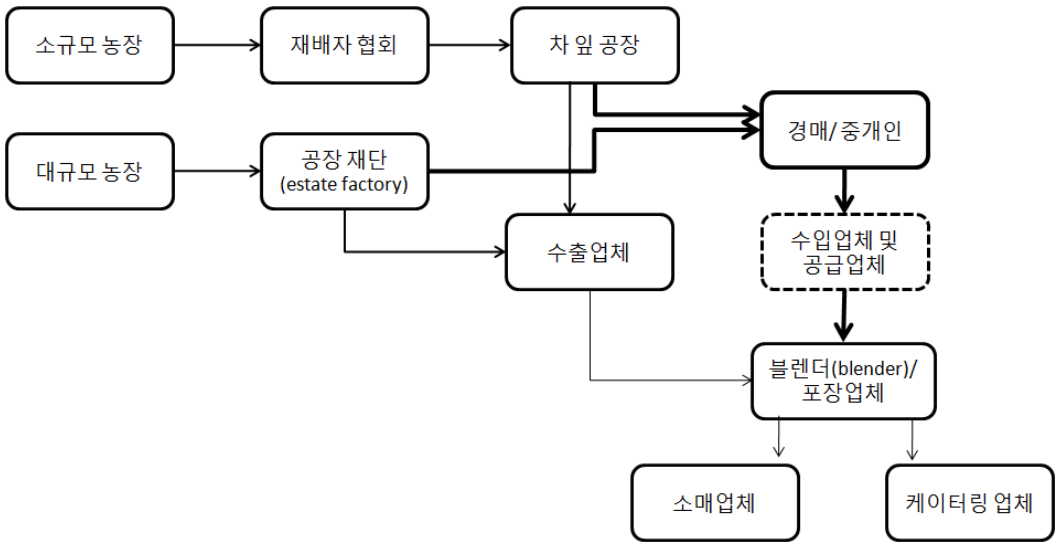
- 그러나 실제 Lipton의 시장점유율은 2007년 37.6%에서 감소하여 2010년에는 36.5%를 기록함
- 이는 영국 Associated British Foods(ABF)의 프랑스 법인인 Foods International이 소유하고 있는 Twinings와 La Tisanière의 시장점유율 성장 때문으로 분석됨
- Twinings의 경우, 2007년 16.3%에서 2010년 17.1%로 0.8%가 증가하였으며, La Tisanière은 시장점유율 자체는 작으나 동기간에 3.7%에서 3.9%로 증가하며 꾸준히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Lipton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Unilever와 Twinings, La Tisanière를 소유하고 있는 Foods International은 각각 영국-네덜란드와 영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외국 차 회사들이 프랑스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시장점유율 상위 10개 브랜드 중 Pagès만이 순수 프랑스 회사임

2. 유통동향

일반 수입 차 제품의 유통경로

- 일반적으로 프랑스로 수입되는 차 제품들은 잎의 형태로 들어오는 비중이 대부분이고 소비자 판매용 패키지 제품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상당히 적음
- 수입 차 제품의 유통경로를 정리해 보면 아래 도표와 같음

〈 일반 수입 차 제품의 유통경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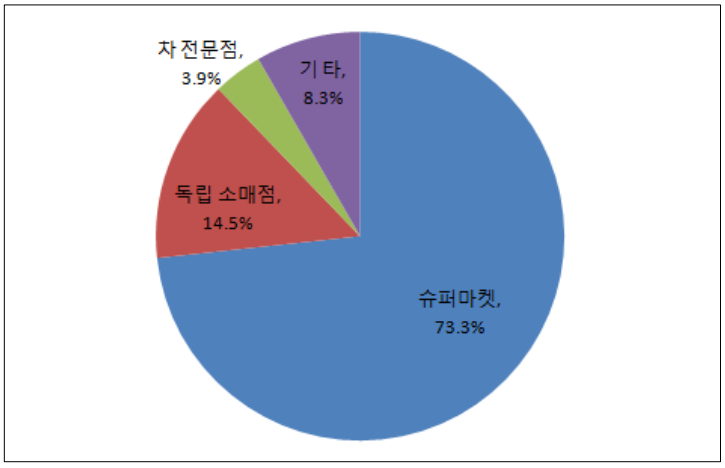


자료 : www.CBI.eu

- 차는 대부분 전통적으로 대규모 농장에서 재배되고 있으나 소규모 농장에서 재배되는 경우도 있음
- 소규모 농장에서는 차 잎을 중간 상인 또는 재배자 협회를 통해 판매하고 있음
- 이 유통경로에서 프랑스 마켓으로 차 제품이 수입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는 수입 및 공급업체로, 이 업체들은 생산자와 블렌더 및 포장업체를 연결하는 중간 상인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블렌더는 최대 35가지의 다양한 차 잎을 섞어 고유의 차의 향과 맛을 만들어 차를 최종 상품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위의 Lipton과 Twinings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세계 잎 차 생산량의 약 70% 가량은 경매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경매 센터들로는 인도의 콜카타(Kolkata, 옛 Calcutta)와 코친(Cochin), 스리랑카의 콜롬보(Colombo), 케냐의 몸바사(Mombasa), 말라위의 블랜타이어(Blantyre),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Djakarta)가 있음
- 반면 아르헨티나, 중국 등과 같은 비 전통적인 차 수출 국가들은 차를 직접 수입 및 공급업체에 판매하고 있음
- 최근 가장 큰 차 수입업체로 떠오르고 있는 업체들은 블렌딩과 포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블랜더들로, 이들은 중개인과 같은 중간업체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프랑스로 수입하고 있음
- 블렌더들은 차를 최종 상품화하여 소매업체와 케이터링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데, 소매업체 유형별 차 판매 점유율을 보면 슈퍼마켓이 73.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독립 소매점 14.5%, 차 전문점 3.9%, 기타가 8.3%를 차지하고 있음

〈 소매업체 유형별 차 판매 점유율 〉



자료 : 데이터모니터 2010

- 차 전문점을 통한 차 판매량은 전체 차 판매량의 불과 3.9%에 그치고 있으나, 파리와 주요 대도시에 위치한 차 전문점들은 보다 색다른 차를 원하는 젊은 소비자들과 고품질의 진귀한 차를 찾는 전문가들을 타깃으로 하며 성업 중임

- 이 소비자들은 차를 라이프스타일의 일부분, 건강과 휴식을 위한 방법으로 여기고 있음

유통단계별 차 가격

- 차의 가격은 품질과 제품의 형태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대부분 아래와 같은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차 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됨

- 농장에서 차를 생산하는데 드는 총 비용은 평균 1.25유로/kg이나 경매를 거치면서 1.63유로/kg로, 운송과정을 거치며 2.47유로/kg로 상승하고 차 제조공장에서 재포장되고 창고에 보관되면서 8.51유로/kg, 슈퍼마켓에서는 18.10유로/kg에 판매되고 있음

〈 유통단계별 차 가격의 변화 〉

총 생산 비용	1.25유로/kg FOB (이 중 0.51유로/kg는 임금)
▼	
경 매	1.63유로/kg FOB
▼	
총 운송비용	2.47유로/kg FOB (수출세, 정박비, 운송비)
▼	
총 제조비용	8.51유로/kg FOB (마케팅, 재포장비, 차포장비, 보관비)
▼	
슈퍼마켓 판매가	18.10유로/kg

자료 : www.CBI.eu

주요 수입업체

업체명	특 징	웹사이트
Thés George Cannon	차 수입업체	www.georgecannon.fr
Le Palais des Thés	직수입 차 전문업체	www.palaisdesthes.com
Les Deux Marmottes	차 블렌더	www.leszmarmottes.fr
Betjemanandbarton	차 수입업체 프랑스 내 20개의 전문점 소유 파리, 니스, 모나코에 위치한 호텔에 차 공급	www.betjemanandbarton.com
Dammann Frères		www.dammann.fr
Kusmi	차 수입업체이자 브랜드 소유	www.kusmitea.com

3. 수입동향

전체 수입규모

- 2010년 프랑스에서 수입한 차 수입규모는 금액을 기준으로는 1억 5천 6백만 달러, 한화 약 1,696억 원, 물량으로는 약 2만 톤을 기록함
- 프랑스에서 차를 가장 많이 수입한 원산지는 영국으로, 32.8백만 달러, 2.7천 톤으로 나타났으며 독일(3천만 달러, 3.6천 톤), 벨기에(2.7천만 달러, 3.3천 톤), 중국(2.6천만 달러, 4.9천 톤), 폴란드(1천만 달러, 1.3천 톤)가 2-5위를 차지함

〈 국별 수입규모 〉

(단위 : 천 달러, 톤, %)

국 가	2008년		2009년		2010년		2009-2010년 성장률		2008-2010년 성장률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전 체	151,901	18,869	134,542	17,803	156,058	19,496	16.0	9.5	2.7	3.3
영 국	38,437	2,847	32,236	3,006	32,830	2,686	1.8	-10.6	-14.6	-5.7
독 일	24,292	3,363	21,654	2,623	29,219	3,595	34.9	37.1	20.3	6.9
벨기에	18,311	2,168	24,365	2,858	27,054	3,271	11.0	14.5	47.7	50.9
중 국	25,995	4,814	25,487	4,547	25,949	4,925	1.8	8.3	-0.2	2.3
폴란드	14,337	2,097	8,137	1,477	10,123	1,262	24.4	-14.6	-29.4	-39.8
스리랑카	6,690	1,150	4,562	845	5,184	829	13.6	-1.9	-22.5	-27.9
모로코	3,303	71	2,174	51	3,648	107	67.8	109.8	10.4	50.7
일 본	2,340	58	2,498	60	3,499	76	40.1	26.7	49.5	31.0
네덜란드	2,360	428	2,669	635	3,076	686	15.2	8.0	30.3	60.3
스위스	19	1	53	2	2,514	55	4,643.4	2,650.0	13,131.6	5,400.0
아랍에미리트	4,514	402	1,589	222	2,345	282	47.6	27.0	-48.1	-29.9
체 코	1,473	376	1,658	484	2,289	654	38.1	35.1	55.4	73.9
이탈리아	1,813	139	1,436	113	1,825	181	27.1	60.2	0.7	30.2
인 도	2,246	205	1,682	148	1,553	128	-7.7	-13.5	-30.9	-37.6
스페인	540	49	753	76	1,298	151	72.4	98.7	140.4	208.2
오스트리아	272	61	405	88	594	121	46.7	37.5	118.4	98.4
베트남	823	58	449	30	451	42	0.4	40.0	-45.2	-27.6
모리셔스	287	28	276	30	419	47	51.8	56.7	46.0	67.9
미 국	1,191	86	223	11	228	13	2.2	18.2	-80.9	-84.9
한 국	114	11	35	3	217	17	520.0	466.7	90.4	54.5

자료 : GTA

* 주 : HS 코드 0902로 검색함

- 수입규모 상위 5개국이 전체 차 수입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0%에 달하고 있어 이들 국가들을 중심으로 차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수입규모 동향을 보면 2008-09년에는 금액은 약 10%, 물량은 6% 가량이 감소하였다가 2009-10년에 각각 16%, 9.5%로 크게 증가하면서 최근 3년간 전반적으로는 수입액과 수입량 모두 약 3%가량이 성장함

- 수입규모 상위 5개 국가 중 상대적으로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는 독일과 벨기에로, 독일산 차 수입규모는 최근 3년간 수입액과 수입량이 각각 20.3%, 6.9%가 증가하였으며 벨기에산 차는 각각 47.7%, 50.9% 성장한 것으로 파악됨

- 위의 20개 국가 중 10개국은 유럽지역, 동아시아 4개국, 남아시아 2개국, 아프리카 2개국, 중동 1개국, 아메리카 1개국으로 분석되었는데, 타 유럽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많은 것은 위의 유통경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 생산지와 블렌딩이 이루어져 최종 제품화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임

- 또한 위의 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스리랑카, 인도와 같은 대표적인 홍차 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녹차를 주로 수출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임

- 스리랑카와 인도로부터의 최근 3년간 차 수입액은 각각 -22.5%, -30.9%, 수입량은 각각 -27.9, -37.6%로 급감하였으며, 동기간에 일본과 한국으로부터의 차 수입액은 각각 45%, 90%, 수입량은 31%, 55%가 급증함

- 이와 같은 추세는 프랑스의 차 종류별 시장규모 동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녹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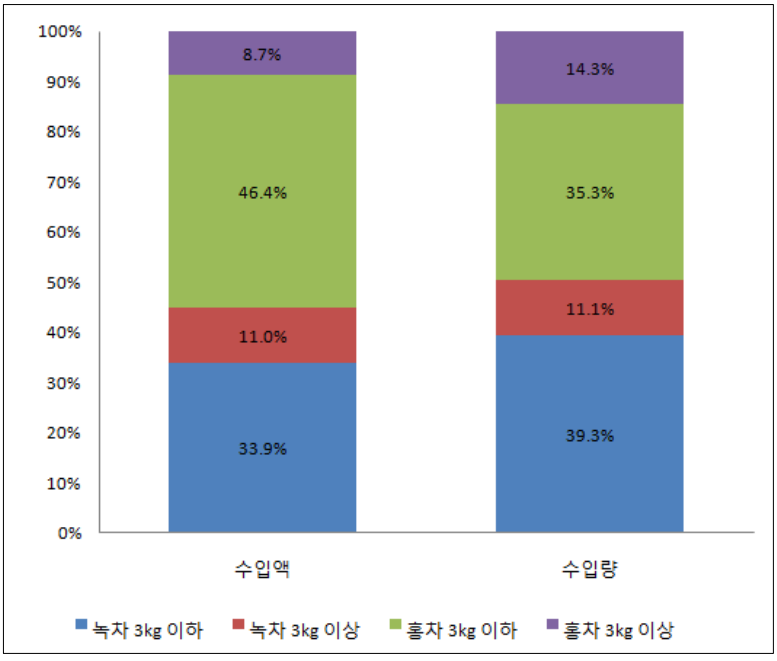
제품 유형별 수입 비중

- 제품 유형별로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해 보면, 홍차 3킬로그램 이하가 4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녹차 3킬로그램 이하 34%, 녹차 3킬로그램 이상 11%, 홍차 3킬로그램 이상 8.7%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수입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와는 다르게 녹차 3킬로그램 이하가 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홍차 3킬로그램 이하 35.3%, 홍차 3킬로그램 이상 14.3%, 녹차 3킬로그램 이상 11.1%로 파악됨

- 이는 홍차의 킬로그램당 가격이 녹차보다 높음을 보여줌

〈 제품 유형별 수입 비중 〉



자료 : GTA

제품 유형별 수입 원산지

- 제품 유형별로 주로 어떤 국가에서 차를 수입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 녹차 3킬로그램 이하는 중국(16,618천 달러, 3,479톤), 벨기에(10,902천 달러, 1,606톤), 영국(8,154천 달러, 491톤)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일본(11위, 661천 달러, 18톤)과 한국(14위, 186천 달러, 16톤)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수입하고 있음

- 반면 녹차 3킬로그램 이상에서는 독일(8,421천 달러, 727톤), 중국(3,357천 달러, 847톤), 일본(2,782천 달러, 56톤) 순으로 수입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수입하는 규모는 1천 달러, 1톤 미만임

〈 제품 유형별 수입 원산지 〉

(단위 : 천 달러, 톤, %)

국 가		2008년		2009년		2010년		'09-'10년 성장률		'08-'10년 성장률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녹차 3kg 이하	전 체	42,466	5,951	40,193	5,609	52,897	7,661	31.6	36.6	24.6	28.7
	중 국	15,659	3,238	14,811	3,016	16,618	3,479	12.2	15.4	6.1	7.4
	벨기에	4,802	678	6,358	1,053	10,902	1,606	71.5	52.5	127.0	136.9
	영 국	7,812	354	6,496	350	8,154	491	25.5	40.3	4.4	38.7
	일본(11위)	291	11	417	11	661	18	58.5	63.6	127.1	63.6
	한국(14위)	80	10	17	2	186	16	994.1	700.0	132.5	60.0
녹차 3kg 이상	전 체	16,581	2,402	16,342	2,265	17,189	2,162	5.2	-4.5	3.7	-10.0
	독 일	7,947	727	7,201	669	8,421	727	16.9	8.7	6.0	0.0
	중 국	3,328	883	3,435	772	3,357	847	-2.3	9.7	0.9	-4.1
	일 본	1,909	44	2,066	49	2,782	56	34.7	14.3	45.7	27.3
	한국(29위)	2	0	0	0	1	0	0.0	0.0	-50.0	0.0
홍차 3kg 이하	전 체	80,760	8,216	64,266	6,859	72,373	6,882	12.6	0.3	-10.4	-16.2
	영 국	29,342	2,036	23,000	2,146	23,283	1,905	1.2	-11.2	-20.6	-6.4
	벨기에	12,468	1,297	17,118	1,647	15,115	1,444	-11.7	-12.3	21.2	11.3
	독 일	7,119	953	5,779	735	10,004	1,134	73.1	54.3	40.5	19.0
	일본(24위)	50	2	10	0	25	1	150.0	0.0	-50.0	-50.0
	한국(28위)	14	1	12	0	13	0	8.3	0.0	-7.1	-100.0
홍차 3kg 이상	전 체	12,093	2,300	13,742	3,070	13,598	2,791	-1.0	-9.1	12.4	21.3
	독 일	4,913	751	4,706	803	5,049	812	7.3	1.1	2.8	8.1
	중 국	1,479	332	1,713	467	1,223	357	-28.6	-23.6	-17.3	7.5
	네덜란드	889	297	1,068	396	1,133	375	6.1	-5.3	27.4	26.3
	일본(15위)	89	1	6	0	31	1	416.7	0.0	-65.2	0.0
	한국(20위)	19	0	7	1	18	1	157.1	0.0	-5.3	0.0

자료 : GTA

* 주 : 위의 순서대로 HS 코드 090210, 090220, 090230, 090240로 검색함

- 홍차 3킬로그램 이하 제품은 주로 영국(23,283천 달러, 1,905톤), 벨기에(15,115천 달러, 1,444톤), 독일(10,004천 달러, 1,134톤)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규모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물량으로 보면 일본은 1톤, 한국은 1톤 미만으로 파악됨

- 홍차 3킬로그램 이상 제품은 독일(5,049천 달러, 812톤)에서 가장 큰 규모로 수입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국(1,223천 달러, 357톤)과 네덜란드(1,133천 달러, 375톤)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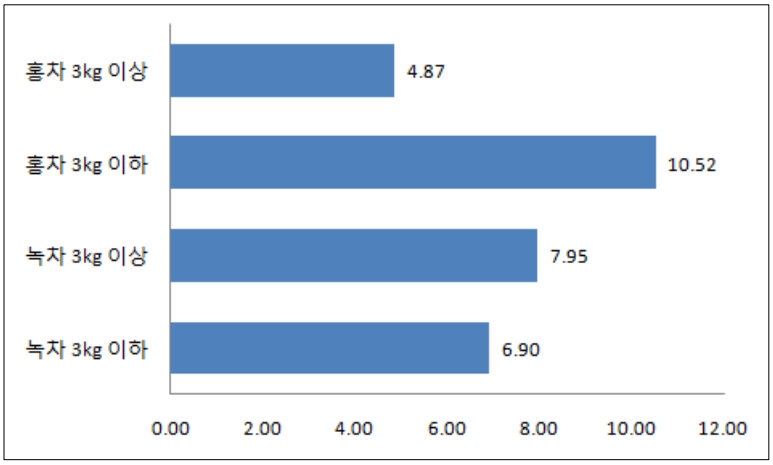
수입가격 비교

- 먼저, 제품 유형별로 수입 가격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홍차 3kg 이하가 킬로그램당 10.52달러로 가장 높은 가격에 수입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녹차 3킬로그램 이상(7.95달러), 녹차 3킬로그램 이하(6.90달러), 홍차 3킬로그램 이상(4.87달러) 순임

- 녹차는 세부 제품 유형에 따라 불과 1달러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홍차는 홍차 3킬로그램 이하 제품이 3킬로그램 이상 제품보다 무려 2배 이상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품 유형별 수입 가격 비교 〉

(단위 : 달러)



자료 : GTA

- 제품 유형별 원산지별로 수입가격을 비교해 보면, 녹차 3킬로그램 이하는 일본산 제품의 수입가격이 36.72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체 6.90달러보다 무려 6배 가량이 높은 것으로, 영국 16.61달러보다 2배 이상임

- 한국산 녹차는 전체 수입 가격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간 높지만 일본산 수입가격의 1/3에 불과하고 영국산보다도 5달러가 낮아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음

- 녹차 3킬로그램 이상에서도 일본산 제품의 수입가격이 킬로그램당 거의 50달러에 육박하며 가장 높은 반면, 중국산은 4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홍차 3킬로그램 이하에서는 일본(25달러)을 제외하고 대부분 10달러 안팎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음

- 홍차 3킬로그램 이상에서는 일본(31달러)과 한국(18달러)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이 가장 높은 반면, 중국(3.42달러)과 네덜란드(3.02달러)로부터의 수입가격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제품 유형에 따른 원산지별 수입가격 비교 〉

(단위 : 달러)

국 가		수입가격
녹차 3kg 이하	전 체	6.90
	중 국	4.78
	벨기에	6.79
	영 국	16.61
	일 본	36.72
	한 국	11.63
녹차 3kg 이상	전 체	7.95
	독 일	11.58
	중 국	3.96
	일 본	49.68
	한 국	0.00

홍차 3kg 이하	전 체	10.52
	영 국	12.22
	벨기에	10.47
	독 일	8.82
	일 본	25.00
	한 국	0.00
홍차 3kg 이상	전 체	4.87
	독 일	6.22
	중 국	3.43
	네덜란드	3.02
	일 본	31.00
	한 국	18.00

자료 : GTA

4. 통관 및 수입검사

통관거부 사례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유럽 내 차제품의 통관거부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프랑스로의 차 수입 과정에서 중요한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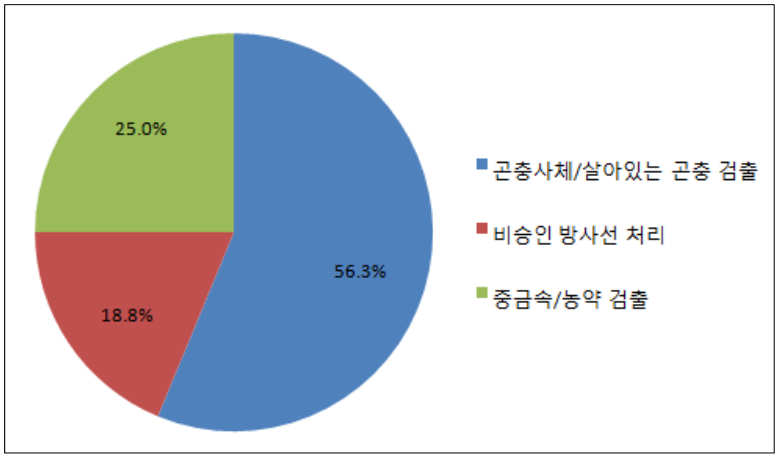
〈 2008-10년 차 제품 통관 거부 사례 〉

검역국가	원산지	문제사유	후속조치
이탈리아	인 도	민트차, 레몬 홍차, 얼그레이 홍차에서 fenpropathrin (0.12; 0.29; 0.28 mg/kg - ppm) 검출	반송 또는 폐기조치
이탈리아	중 국	녹차에서 lead(3 mg/kg - ppm)검출	반송조치
핀란드	스위스	유기농 허브차에서 dimethomorph(0.069 mg/kg - ppm) 및 fenpropidin(0.045 mg/kg - ppm) 검출	물리적/화학적 처리
폴란드	중 국	차에서 곤충 사체 검출	반송조치
폴란드	중 국	puerh fanning 차에서 곤충 사체 검출	반송조치
폴란드	중 국	puerh fanning 차에서 곤충 사체 검출	공식적 보류
폴란드	중 국	차에서 곤충 사체 검출	반송조치
폴란드	중 국	puerh fanning 차에서 진드기 사체 검출(51/100g)	공식적 보류
폴란드	중 국	녹차에서 곤충사체 및 살아있는 곤충 검출	반송 또는 폐기조치
폴란드	중 국	puerh fanning 차에서 곤충 사체 및 살아있는 곤충 검출	폐기조치
루마니아	중 국	차의 비승인 방사선 처리	반송조치
핀란드	중 국	백차에서 Salmonella Singapore(present/25g) 및 faecalstreptococci(1600000CFU/g) 검출	반송조치
루마니아	중 국	차의 비승인 방사선 처리	반송조치
루마니아	중 국	차의 비승인 방사선 처리	폐기조치
폴란드	중 국	puerh 차에서 곤충 사체 검출(58/100g)	반송조치
폴란드	중 국	puerh 차에서 곤충 사체 검출	반송조치

자료 : 유럽 연합 식품 및 사료 긴급 경보 시스템 RASFF 웹사이트

- 통관 거부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크게 곤충 사체 또는 살아있는 곤충 검출, 비승인 방사선 처리, 중금속/농약 검출의 3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중 곤충 사체 또는 살아있는 곤충 검출이 5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체에서는 수출하기 전 제품에 곤충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또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연합에서는 차 제품에 대한 방사선 처리는 승인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품에 이와 같은 처리를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중금속과 농약의 경우는 종류별로 최대 허용 잔류량을 설정해 놓고 있으므로, 차 제품에 대한 중금속과 농약 최대 허용 잔류량을 살펴보고자 함

〈 통관 거부 사례 유형별 비중 〉



자료 : 유럽 연합 식품 및 사료 긴급 경보 시스템 RASFF 웹사이트

농약 최대 허용 잔류량(MRLs)

- 유럽연합의 농약 데이터베이스에서 차 제품에 대한 농약별 최대 허용 잔류량을 검색한 결과, 400여 개의 농약에 대해 최대 허용 잔류량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함

〈 차 제품의 농약별 최대 허용 잔류량 〉

농약명	MRLs (mg/kg)	농약명	MRLs (mg/kg)	농약명	MRLs (mg/kg)
1,1-dichloro-2,2-bis	0,1	Diphenylamine	0,05	Mevinphos	0,02
1,2-dibromoethane	0,02	Diquat	0,1	Milbemectin	0,1
1,2-dichloroethane	0,02	Disulfoton	0,05	Molinate	0,1
1,3-Dichloropropene	0,05	Dithianon	0,01	Monocrotophos	0,1
1-Naphthylacetamide	0,05	Dithiocarbamates	0,1	Monolinuron	0,1
1-Naphthylacetic acid	0,05	Diuron	0,1	Monuron	0,1
1-methylcyclopropene	0,02	Dodine	0,2	Myclobutanyl	0,05
2,4 DB	0,1	Emamectin benzoate B1a	0,02	Napropamide	0,05
2,4,5-T	0,05	Endrin	0,01	Nicosulfuron	0,05
2,4-D	0,1	Epoxiconazole	0,05	Nitrofen	0,02
2-phenylphenol	0,1	Ethalfluralin	0,02	Novaluron	0,01
Abamectin	0,02	Ethirimol	0,05	Orthosulfamuron	0,01
Acephate	0,05	Ethofumesate	0,1	Oryzalin	0,02
Acequinocyl	0,02	Ethoprophos	0,02	Oxadiargyl	0,05
Acetamiprid	0,1	Ethoxyquin	0,05	Oxadiazon	0,05
Acetochlor	0,01	Ethoxysulfuron	0,1	Oxadixyl	0,02
Acibenzolar-S-methyl	0,05	Ethylene oxide	0,2	Oxamyl	0,02
Aclonifen	0,05	Etofenprox	0,01	Oxasulfuron	0,1
Acrinathrin	0,05	Etoxazole	0,05	Oxycarboxin	0,05
Alachlor	0,05	Etridiazole	0,05	Oxydemeton-methyl	0,05
Aldrin and Dieldrin	0,02	Famoxadone	0,05	Oxyfluorfen	0,05
Ametoctradin	0,01	Fenamidone	0,05	Paclobutrazol	0,02
Amidosulfuron	0,05	Fenarimol	0,05	Paraquat	0,05
Aminopyralid	0,02	Fenazaquin	10	Parathion	0,1
Amisulbrom	0,01	Fenbuconazole	0,05	Parathion-methyl	0,05
Amitraz	0,1	Fenbutatin oxide	0,1	Penconazole	0,1
Amitrole	0,02	Fenchlorphos	0,1	Pencycuron	0,05
Anilazine	0,05	Fenhexamid	0,1	Pendimethalin	0,1
Aramite	0,1	Fenitrothion	0,5	Penoxsulam	0,02
Asulam	0,05	Fenoxaprop-P	0,1	Permethrin	0,1
Atrazine	0,1	Fenoxycarb	0,05	Pethoxamid	0,02
Azadirachtin	0,01	Fenpropathrin	2	Phenmedipham	0,1
Azimsulfuron	0,1	Fenpropidin	0,05	Phenothrin	0,05

Azinphos-ethyl	0,05	Fenpropimorph	0,1	Phorate	0,1
Azinphos-methyl	0,1	Fenpyroximate	0,1	Phosalone	0,1
Azocyclotin & Cyhexatin	0,1	Fentin acetate	0,1	Phosmet	0,1
Azoxystrobin	0,1	Fentin hydroxide	0,1	Phosphamidon	0,02
Barban	0,1	Fenvalerate & Esfenvalerate	0,05	Phosphines & phosphides	0,05
Beflubutamid	0,1	Fenvalerate & Esfenvalerate	0,05	Phoxim	0,1
Benalaxyl	0,1	Fipronil	0,005	Picloram	0,01
Benfluralin	0,05	Flazasulfuron	0,02	Picolinafen	0,1
Benfuracarb	0,1	Flonicamid	0,05	Picoxystrobin	0,1
Bentazone	0,1	Florasulam	0,1	Pinoxaden	0,05
Benthiavalicarb	0,01	Fluazifop-P-butyl	0,1	Pirimicarb	0,05
Bifenazate	0,02	Fluazinam	0,05	Pirimiphos-methyl	0,05
Bifenox	0,05	Flubendiamide	0,02	Prochloraz	0,1
Bifenthrin	5	Flucycloxuron	0,05	Procymidone	0,1
Binapacryl	0,1	Flucythrinate	0,1	Profenofos	0,1
Biphenyl	0,05	Fludioxonil	0,05	Profoxydim	0,1
Bitertanol	0,1	Flufenacet	0,05	Prohexadione	0,1
Bixafen	0,01	Flufenoxuron	15	Propachlor	0,05
Boscalid	0,5	Flufenzin	0,05	Propamocarb	0,2
Bromide ion	70	Flumioxazine	0,1	Propanil	0,1
Bromophos-ethyl	0,1	Fluometuron	0,02	Propaquizafop	0,05
Bromopropylate	0,1	Fluopicolide	0,02	Propargite	5
Bromoxynil	0,1	Fluoride ion	350	Propham	0,1
Bromuconazole	0,05	Fluoroglycofene	0,02	Propiconazole	0,1
Bupirimate	0,05	Fluoxastrobin	0,1	Propineb	0,1
Buprofezin	0,05	Flupyrsulfuron-methyl	0,05	Propisochlor	0,01
Butralin	0,02	Fluquinconazole	0,05	Propoxur	0,1
Butylate	0,05	Flurochloridone	0,1	Propoxycarbazone	0,05
Camphechlor	0,1	Fluroxypyr	0,1	Propyzamide	0,05
Captafol	0,1	Flurprimidole	0,02	Proquinazid	0,05
Carbaryl	0,1	Flurtamone	0,05	Prosulfocarb	0,05
Carbetamide	0,05	Flusilazole	0,05	Prosulfuron	0,1
Carbofuran	0,05	Flutolanil	0,05	Prothioconazole	0,02
Carbosulfan	0,1	Flutriafol	0,05	Pymetrozine	0,1
Carboxin	0,05	Folpet	0,05	Pyraclostrobin	0,05

Carfentrazone-ethyl	0,02	Foramsulfuron	0,05	Pyraflufen-ethyl	0,05
Cartap	0,1	Forchlorfenuron	0,05	Pyrasulfutole	0,02
Chlorantraniliprole(DPX E-2Y45)	0,02	Formetanate	0,05	Pyrazophos	0,1
Chlorbenside	0,1	Formothion	0,05	Pyrethrins	0,5
Chlorbufam	0,1	Fosetyl-Al	5	Pyridaben	0,05
Chlordane	0,02	Fosthiazate	0,05	Pyridalyl	0,02
Chlordecone	0,02	Fuberidazole	0,05	Pyridate	0,1
Chlorfenapyr	50	Furathiocarb	0,1	Pyrimethanil	0,1
Chlorfenson	0,1	Furfural	1	Pyriproxyfen	0,05
Chloridazon	0,1	Gibberellic acid	5	Pyroxsulam	0,02
Chlormequat	0,1	Glufosinate-ammonium	0,1	Quinalphos	0,1
Chlorobenzilate	0,1	Glyphosate	2	Quinclorac	0,1
Chloropicrin	0,02	Guazatine	0,1	Quinmerac	0,1
Chlorothalonil	0,1	Halosulfuron methyl	0,02	Quinoxyfen	0,05
Chlorotoluron	0,05	Haloxyfop including haloxyfop-R	0,05	Quintozene	0,05
Chloroxuron	0,1	Heptachlor	0,02	Quizalofop, incl. quizalfop-P	0,05
Chlorpropham	0,1	Hexachlorobenzene	0,02	Resmethrin	0,2
Chlorpyrifos	0,1	Hexachlorociclohexane	0,02	Rimsulfuron	0,1
Chlorpyrifos-methyl	0,1	Hexaconazole	0,05	Rotenone	0,02
Chlorsulfuron	0,05	Hexythiazox	0,05	Silthiofam	0,1
Chlorthal-dimethyl	0,01	Hymexazol	0,05	Spinetoram (XDE-175)	0,1
Chlorthiamid	0,05	Imazalil	0,1	Spinosad	0,05
Chlozolinate	0,1	Imazamox	0,1	Spirodiclofen	0,05
Chromafenozide	0,02	Imazaquin	0,05	Spiromesifen	0,02
Cinidon-ethyl	0,1	Imazosulfuron	0,02	Spirotetramat	0,1
Clethodim	0,1	Imidacloprid	0,05	Spiroxamine	0,1
Clodinafop & S-isomers	0,05	Indoxacarb	0,05	Sulcotrione	0,05
Clofentezine	0,05	Iodosulfuron-methyl	0,05	Sulfosulfuron	0,1
Clomazone	0,02	Ioxynil	0,1	Sulfuryl fluoride	0,02
Clopyralid	0,5	Ipconazole	0,02	Sulphur	0
Clothianidin	0,05	Iprodione	0,1	TEPP	0,02
Copper compounds(Copper)	40	Iprovalicarb	0,1	Tau-Fluvalinate	0,01
Cyanamide	0,1	Isoproturon	0,1	Tebuconazole	0,05

Cyazofamid	0,02	Isopyrazam	0,01	Tebufenozide	0,1
Cyclanilide	0,1	Isoxaben	0,02	Tebufenpyrad	0,1
Cycloxydim	0,05	Isoxaflutole	0,1	Tecnazene	0,1
Cyflufenamid	0,05	Kresoxim-methyl	0,1	Teflubenzuron	0,05
Cyfluthrin	0,1	Lactofen	0,02	Tefluthrin	0,05
Cyhalofop-butyl	0,05	Lambda-Cyhalothrin	1	Tembotrione	0,05
Cymoxanil	0,05	Lenacil	0,1	Tepraloxydim	0,1
Cypermethrin	0,5	Lindane	0,05	Terbufos	0,01
Cyproconazole	0,05	Linuron	0,1	Terbuthylazine	0,05
Cyprodinil	0,05	Lufenuron	0,02	Tetraconazole	0,02
DDT	0,2	MCPA & MCPB	0,1	Thiabendazole	0,1
DNOC	0,1	Malathion	0,5	Thiacloprid	10
Dalapon	0,1	Maleic hydrazide	0,5	Thiamethoxam	0,1
Daminozide	0,1	Mandipropamid	0,02	Thifensulfuron-methyl	0,1
Dazomet	0,02	Mecarbam	0,1	Thiobencarb	0,1
Deltamethrin(cis-deltam ethrin)	5	Mecoprop	0,1	Thiram	0,2
Desmedipham	0,1	Mepanipyrim	0,02	Tolclofos-methyl	0,1
Diallate	0,1	Mepiquat	0,1	Tolylfluanid	0,1
Diazinon	0,02	Mepronil	0,1	Topramezone	0,02
Dicamba	0,05	Meptyldinocap	0,1	Tralkoxydim	0,05
Dichlobenil	0,05	Mercury compounds	0,02	Tri-allate	0,1
Dichlorprop	0,1	Mesosulfuron-methyl	0,02	Triadimefon & triadimenol	0,2
Dichlorvos	0,02	Mesotrione	0,1	Triazophos	0,02
Diclofop	0,05	Metaflumizone	0,1	Tribenuron-methyl	0,02
Dicloran	0,01	Metalaxyl & metalaxyl-M	0,1	Trichlorfon	0,1
Dicofol	20	Metaldehyde	0,1	Triclopyr	0,1
Diethofencarb	0,05	Metamitron	0,1	Tricyclazole	0,05
Difenoconazole	0,05	Metazachlor	0,2	Tridemorph	20
Diflubenzuron	0,1	Metconazole	0,02	Trifloxystrobin	0,05
Diflufenican	0,05	Methacrifos	0,1	Triflumizole	0,1
Dimethachlor	0,02	Methamidophos	0,02	Triflumuron	0,05
Dimethenamid-p	0,02	Methiocarb	0,1	Trifluralin	0,1
Dimethipin	0,1	Metholachlor & metholachlor-S	0,1	Triflusulfuron	0,05

Dimethoate	0,05	Methomyl & Thiodicarb	0,1	Trimethyl-sulfonium cation	0,05
Dimethomorph	0,05	Methoprene	0,05	Trinexapac	0,05
Dimoxystrobin	0,01	Methoxychlor	0,1	Tritosulfuron	0,02
Diniconazole	0,05	Methoxyfenozide	0,05	Valifenalate	0,02
Dinocap	0,1	Metosulam	0,01	Vinclozolin	0,1
Dinoseb	0,1	Metrafenone	0,05	Ziram	0,2
Dinoterb	0,1	Metribuzin	0,1	Zoxamide	0,05
Dioxathion	0,1	Metsulfuron-methyl	0,1		

자료 : 유럽연합 농약 데이터베이스, EU Pesticide Database

FTA 체결에 따른 관세 변화

- FTA 체결 전에는 차 종류 중 3킬로그램 미만의 녹차에만 3.2%의 관세율이 적용되었고 다른 종류의 차 제품은 무관세였음
- 따라서 유럽연합과의 FTA 체결로 인해 3kg 미만의 녹차 가격이 인하되어 한국산 차의 가격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판단됨

라벨링

- 일반 제품의 라벨의 의무 표기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제품 이름
  - 성분 및 성분 함량 또는 성분 카테고리 : 함량이 높은 순으로 표기, 성분 카테고리 및 특정 성분 순으로 표기
  - 알레르기 유발 성분
  - 유효기간 및 보관방법
  - 제조회사 이름 및 주소 또는 유럽 연합 내 수입/판매업자
  - 순 중량
  - 영양성분
  - 원산지(원료의 일부가 제품의 원산지와 달라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을 경우)

5. 한국산 수출 확대 방안

고급 차로서의 이미지 구축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차, 특히 녹차는 건강, 웰빙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일종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색다른 차를 원하는 젊은 소비자들과 고급스럽고 진귀한 차를 찾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되고 있음

- 따라서 한국 차가 프랑스 시장에 진출 또는 수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급스럽고, 건강에 유익하며 진귀한 차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이미지 구축의 방법으로는 최종 제품의 경우, 패키지 디자인을 고급화 할 필요가 있음

- 패키지의 재질 뿐 아니라 색, 글자체, 문양 등을 고급스러우면서도 한국 전통차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패키지에 단지 수입업체와 중량, 보관 방법 등의 필수 라벨링 사항뿐 아니라 패키지를 통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를 들어, 한국의 어떠한 환경적 특징을 가진 지역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재배를 한 차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차 잎이 수확이 됐고, 어떠한 공정 과정을 거쳐 제품화 되었는지 자세히 표기하는 것도 한 방법임

다양한 건강차의 개발

- 프랑스 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건강'으로, 녹차도 이와 같은 배경에 힘 입어 시장이 매해 성장하고 있으며 약용 식물을 활용한 차 제품이 새로 출시되고 있음

- 반면, 한국의 분말형 '쌍화차', '생강차', '땅콩차' 등의 즉석차는 인공적인 느낌 때문에 프랑스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음

- 따라서 녹차뿐 아니라 한국의 식물 중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 건강에 이롭고, 향을 가지고 있는 차를 개발하거나 녹차와 이러한 식물을 혼합하여 새로

운 차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다양한 건강차의 개발을 통하여 차 제품의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음

제품 관련 인증

- 제품의 품질에 대해 프랑스 소비자들에게 별도의 홍보 없이 신뢰성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세계적인 기관으로부터 차 제품과 관련된 인증을 받아 그 인증 마크를 패키지에 넣는 것임
- 가장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유기농 인증이 있음
- 또한 차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인증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생산된 제품에 부여하는 다우림 연맹 인증(Rainforest Alliance Certified)이 있음

〈 차 제품에 사용되는 인증 마크 〉

다양한 차를 취급하는 수입업체 발굴

- 한정된 차 종류만을 취급하는 수입업체의 경우, 기존 거래선을 쉽게 바꾸지 않으며, 기존 제품에 새로운 제품을 추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반면 다양한 차를 취급하는 수입업체의 경우, 소량이더라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차를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의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거래를 시작하기가 수월한 특징이 있음
- 따라서 다양한 차를 취급하면서 수입업체 자체의 매장을 가지고 있거나 프랑스 전역의 케이터링 업체 등에 거래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처음 시장 개척 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한국 차 생산지와 연계시킨 홍보

- 인도의 다르질링(Darjeeling)과 아쌈(Assam), 스리랑카의 실론(Ceylon)은 대표적인 차 생산지로, 이 지역에서 생산된 차가 널리 퍼지면서 생산 지명이 마치 차 종류의 일종처럼 인지되고 있음
- 또한 차 생산 지역이 관광코스로도 활용되고 있어 생산지를 둘러본 후에 차도 시음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국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주요 차 생산지를 적극 홍보하여 세계적인 고급 녹차의 대명사로 만드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전략은 제품의 고급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지속적인 박람회 참가를 통한 바이어 발굴

- 프랑스에서 차를 취급하는 수입업체를 찾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지속적으로 관련 식품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임
- 프랑스의 대표적인 식품 박람회로는 10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Sial 박람회(www.sialparis.com)가 있음

한·EU FTA 체결에 따른 수출유망품목(차류)

발행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발행일 : 2011년 10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조사참여 : 유럽 - 로테르담 aT센터
총괄 - 식품수출정보팀(오유경)
문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
02) 6300-1399

본 자료는 KATI(www.kati.net) 〉 무역정보 〉 발간책자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우리 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부정비리 신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신자부담 「24시간 부정비리 신고 모바일 핫라인(080-112-2580)」을 개설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